

칭하이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최고의 스승이 바로 여기에 있다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0



와, 내가 보기엔 여러분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없습니다. 히말라야나 깨달음, 다른 어딘가에 있을 스승에 대해 너무 많은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여기에 스승이 하나 있고, 나는 그가 최고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스승은 아주 훌륭하며 최고이니 여러분은 제대로 찾은 겁니다. 그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일이고, 또 가장 좋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사이의 비밀입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스승을 쉽게 만날 만한 운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가져다주기로 자원했나 봅니다. 나는 이런 일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얘기하는 건 이 육신이 아니라 내면의 스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 육신을 찬미한다고 생각할까 봐 항상 걱정이 됩니다. 이 육신은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내가 가리키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혼란스럽거나 내 말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비록 이 육신에 깨달은 스승이 존재하긴 하지만 육신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개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미하는 대상도 아닌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쑥스럽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론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운 데다 난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스승의 힘을 가진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이 이치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 스승의 힘은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시대든 내려올 수 있다는 것, 이 점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승은 어디에 태어나야 하고 어떤 법맥을 이어받아야 하며 법맥을 받은 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거나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왜 그 사람이 얻었는지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스승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방식일 뿐입니다. 세상의 법일 뿐이지요. 예수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요한에게 세례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그를 스승이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착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잘못입니다!

스승님께서 모든 동수들에게
사랑이 담긴 안부를 전하시며
다들 행복한
'황금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하십니다.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최고의 스승이 바로 여기에 있다

2 관음 가족 크리스마스 특별 기고

캐나다/ 칠레/ 멕시코/ 스페인/ 코스타리카/ 미국/ 대한민국/ 포모사

10/ 28 감로벌어

11 과학과 영성

크리스마스에 반추해 보는 인생의 프랙탈

12 신기한 감응

우리 가족을 살피시는 진능한 힘/ 늙은 농부의 선 행사 참가기

14 다채로운 이벤트

폴란드/ 미국/ 캐나다/ 태국/ 대한민국/ 포모사

14 행사 메모

21 스승님의 농담

아주 예의바른 경찰/ 오늘의 특별 상품: 물건은 하나, 가격은 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22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성의 빛이 우주를 비추게 하라

25 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26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행사

명사수의 백발백중 비결

29 사계지간의 편지

빛과 사랑, 희망, 기적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

30 채식 시대

채식과 자비의 길/ 채식을 하면 행복하고 정신이 맑아진다

32 지혜어록

비폭력의 참뜻

35 동물의 유정 세계

동물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다

36 이야기 세상

스승님과 천상의 작은 조수들

37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삶의 모든 기적을 소중히 여겨라

38 골라 뽑은 수행문답

놀라운 은총/ 명상을 많이 할수록 업장을 보다 잘 다룰 수 있다

41 사랑의 실천

대한민국/ 태국/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이란

42/ 46 매체 보도

대한민국 『강원도민일보』/ 미국 플로리다 『사라소타 헤럴드 트리뷴』

52 관음 웹사이트

53 전세계 연락처

뒤표지 안 무상 예술

S.M. 추동복 컬렉션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CD/ DVD



신의 무한한 지혜는 아무리 배워도 끝
이 없습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출판일자 : 2004. 4. 27.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아올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48호



관음 가족 크리스마스 특별 기고

황금시대의 생활 방식

-명상, 신의 복음 나누기, 이웃돕기



캐나다 퀘벡 소식

전 지구에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값진 선물

피에르 유카리스트 & 작은 꽃/ 몬트리올

만세, 만세, 만세!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새해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빛과 사랑으로 전 지구를 고양시키셨네.

만세, 만세, 만세!
이제 이 푸른 별은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만세, 만세, 만세!
올해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더없이 행복하여라.

만세, 만세, 만세!
아름다운 스승님께서
계속하여 이 세계에
우주로 가는 문을 열어 주시리니.

만세, 만세, 만세!
스승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노라.
기쁨과 빛으로 가득한
이 광대한 우주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알게 해주셨으니.

스승님,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세요!

-만행 전체 입문자 드림-

지난 2002년 스승님과 함께 플로리다 센터에서 침묵의 크리스마스
선 행사를 보낸 후 전세계 센터들은 2003년 들어 스승님으로부터 인류
의 의식 고양에 대한 멋진 소식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해 들었다. 몬
트리올 동수들은 스승님께 가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스승님의 천상의 가
르침의 인도를 받아 수많은 중생들과 함께 황금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
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몬트리올 동수들은 자기 정화와 영적 진보의 기회를 갖기 위해 12월 24
일부터 26일까지 선삼을 하면서 이 의미 깊은 행성의 변화를 기념했다.
또 유난히 화창하고 아름다웠던 일요일 오후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방편법 수행자들을 초대해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우리는 12월 27일 몬트리올 중심가를 차로 순회하고 지하철
로를 따라 걸으면서 특별히 준비해 온 채식 샌드위치를 노숙자들에게 나
누어 준 후 저녁에는 남은 음식을 노숙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있는
유제니 & 베르니에 복지관에 갖다 주었다. 그곳의 에드워드 개스콘 씨
는 동수들을 보고 “여러분이 신의 대리인처럼 느껴지는군요.” 하고 말하
며 눈물을 흘렸다.

2003년 들어 변화된 인류의 영성 고양에 힘입어 몬트리올 센터의 여
러 비디오 강연회도 여타 센터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방



편법을 배운 사람들도 많았다. 또 거리에서나 사무실, 버스, 지하철 등지에서 우리가 영성과 명상에 대해 말할 때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기울였으며 스승님의 음악 및 비디오테이프를 들을 때도 바로 스승님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전 지구에 일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스승님은 몇 년 전 “우리는 황금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상에서 살아 있는 진정한 스승을 알게 되다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의 꿈을 이뤄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진정한 크리스마스’ 경축 행사

조이스/ 토론토

“이번 크리스마스는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제가 기쁨에 들떠 한 말이다. 그 답은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주 특별하기 때문인 것이다! 토론토 센터는 12월 21일 이를 기리는 특별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동수들의 ‘마술 같은 솜씨’로 센터 모습이 확 달라졌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동수들의 기쁨이 더해져 센터는 더욱더 빛이 났다.

동수들은 먼저 일요일 단체명상을 마친 후 축하 행사를 시작했다. 이날 점심 식사에 초대된 가족, 친구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면서 동수들과 함께 맛있는 채식 음식과 디저트를 즐겼다.

아이들은 각자 선물을 준비해 와 교환하기도 했다. 입문하지 않은 한 부인은 딸아이가 센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스승님의 은총으로 천국과 지상이 마침내 맞닿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주변의 무수한 성인들과 살게 되었다.



칠레 산티아고 소식

영적 성장을 돕는 봉사 활동

에릭 도라도/ 산티아고

산티아고 센터는 2003년 12월 20일 동수들과 가족,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크리스마스 경축 행사를 가지는 한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 깊은 이번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불우 이웃 돕기





관음 가족 크리스마스 특별 기고

를 하기로 하고 옷과 현금, 유용한 생필품이 담긴 수십 개의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산티아고 곳곳을 누볐다.

동수들은 사람들의 고생스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괴로움과 어려운 처지에 관심을 갖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통해 동수들은 수행과 스승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전하는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값진 공부를 통해 산티아고 제자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소식

기적의 담요가 멕시코칼리의 노숙자들을 따뜻이 감싸다

실비아 라그란제/ 멕시코칼리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멕시코칼리 센터는 생각지도 않던 질 좋은 담요를 대량으로 선물 받았다. 이 감동적인 선행에 고무된 동수들은 노숙자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12월 21일 함께 모인 가운데 채식 간식거리를 만들고 과일 상자를 준비하는 등 모든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 스승님께서 우리 활동을 축복하시는 것 같았다.

이러한 온정 어린 분위기는 이 지역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모녀에게도 전해졌다. 평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도울 기회가 별로 없었던 두 사람은 이번 사랑의 활동에 합류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음식과 담요를 나누어 주는 일을 적극 도와주었다.

이전 크리스마스 때는 주로 축하 파티와 선물, 다과로만 경축했었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번 활동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했다. 이 외 센터에서 가진 크리스마스 만찬 때 활동에 참여했던 소녀와 어머니는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신이 우리 동수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드렸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전세계의 의식을 고양시킨 스승님의 사랑 덕분임을 알고 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페인 소식

현대의 산타클로스가 노숙자들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전해 주다

프란체스코 타라기/ 발렌시아

크리스마스 당일, 발렌시아 동수들은 이불과 채식 음식을 준비해 차를

몰고 시내를 다니면서 눈에 띄는 대로 어려운 처지의 노숙자들에게 담요와 함께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음식이 담긴 꾸러미를 나눠 주었다. 또



한 축복이 담긴 진솔한 인사를 전하면서 신계 이들 형제자매들을 도와주 시길 기도했다. 노숙자들은 선물에 크게 고마워했으며 기쁨이 역력한 모습으로 선물을 받았다. 활동을 마친 동수들이 남은 선물을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발렌시아 구호 협회에 전하 자 그곳 책임자 또한 매우 기쁘게 물품을 접수했다.



코스타리카 소식

성탄의 기쁨이 평화의 땅에 퍼지다

리우라 천/ 산호세

산 세바스티앙 교도소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2003년 12월 22일 성탄절의 기쁨이 산호세 산 세바스티앙 교도소에도 전해졌다. 코스타리카 동수들이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 것이다. 행사는 한 사형의 세레나데 기타 연주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어진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에 모두들 귀를 기울였다. 그 중 15명의 재소자가 방편법을 배웠다. 교도소 측에서는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소내 작은 방에서 함께 명상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파티는 크리스마스 캐럴 등 즐거운 공연들로 계속 이어졌고, 모두들 과일 주스와 채식 케이크, 과자 등을 함께 나눠 먹었다. 마지막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제가 산타 모자를 쓴 동수들과 함께 재소자 친구들에게 새 옷을 선물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하며 칭하이 무상사가 보내는 진리의 메시지와 사랑에 열광적인 박수갈채로 감사를 표했다.

외진 곳에도 스승님의 축복이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2003년 12월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전단을 나누어 주는 한편 변두리 지역 어린이들에게는 사탕과 과자가 든 크리스마스 선물 주머니를 나눠 주면서 산호세의 구도자들에게 스승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희망했다.



그후 폰타레나스 시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옷과 장난감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 집은 부모 외에 아이가 여덟 명이나 되었다! 그 중 세 살배기 여자아이는 금발 인형을 선물 받고는 좋아하며 부모에게 말했다. “이것 보세

요!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금발 인형을 갖고 싶다고 했더니 정말로 주셨어요!” 그 아이의 오빠도 그동안 갖고 싶었던 새 바지를 받고 기쁨에 들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소년은 바지를 바로 입어 보며 말했다. “와! 정말 좋은 바지네요. 학교 갈 때 입으면 되겠어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선 행사와 성탄절 파티, 그리고 행복한 새해

코스타리카 센터는 사랑과 기쁨 속에 스승님의 2003년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접하고 인류의 영성 고양에 대한 소식에 뭉클함이 기뻐했다. 이에 12월 27일 기념 선일 행사를 갖고 28일에는 동수들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경축 파티를 열었다. 행사를 시작하며 사형사저들은 먼저 스승님께 감사를 드리고 “스승님의 사랑이 전 지구에 두루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해서 이번 코스타리카 동수들의 성탄절 활동은 새해를 맞이하여 스승님께 드리는 이 신실한 사랑의 메시지로 마감하게 되었다.



의미 깊고 영성의 성과가 풍부했던 2003년

중요우핑/ 오리건

영성을 고양시키는 침묵의 선 행사

2002년 플로리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침묵의 선 행사를 통해 그 이로움을 체험한 오리건 센터 동수들은 2003년 1월부터 정기적으로 침묵의 선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 선 행사에서 발산된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센터의 분위기는 대단히 평온해졌으며, 많은 동수들이 묵언을 한 후로 집중이 훨씬 쉬워졌다고들 얘기하고 있다.

풍부한 결실을 맺은 케이블 TV 방송

오리건 센터는 최근 4개 방송국에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방송하고 있다. 특히 2003년 8월부터는 시청자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그 중 약 80%가 입문을 신청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 동수들은 이러한 변화가 스승님의 끝없는 은총으로 지구의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깨달음을 향한 궁극의 법문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신했다.

최대의 성과를 거둔 비디오 강연회

오리건 센터의 기존 홍보 강연회는 보통 오리건 주 최대 도시이자 대부분 동수들이 살고 있는 포틀랜드에서 열렸다. 그러나 2003년 12월 14일에 열린 강연회는 포틀랜드 남쪽 윌러밋 강 계곡에 자리잡은 작고 조용한 마을 코발리스(Corvallis) 시립 도서관에서 열렸는데, 역대 비디오 강연회

중 최대 인원이 참석하고 가장 많은 비율(70%)이 방편법을 배웠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포틀랜드 동수들은 이 기쁘고 의미 있는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것을 굉장한 행운으로 여겼다.

교도소에

해탈의 메시지를 전하다

오리건 동수들은 2002년 9월부터 매달 포틀랜드 클랙커머스 카운티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매달 방문 때마다 우리는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준비해 재소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가량 스승님의 DVD를 상영한다. 그후 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은 남아서 방편법을 배우는데, 많은 이들이 좋은 체험을 하고 있다.

성탄 연휴 동안

펼친 기쁨의 봉사 활동

지난 몇 년 동안 오리건 동수들은 명절 때마다 노숙자 친구들에게 봉사 활동을 행해 오고 있다.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2003년 들어서면서 지역의 보호소와 기타 노숙자 보호 기관에서는 더욱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 활동에 합세한 청소년 동수들.



지원 활동도 늘어나게 되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약 750인 분의 식사를 노숙자 보호소에 제공했으며, 크리스마스 전 토요일에는 450인 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과 채식 케이크, 행운의 과자도 함께 나누어 주었다. 행운의 과자 속에는 스승님의 명호와 감로밥어, 관음법문 웹사이트 주소가 인쇄된 작은 쪽지를 넣었는데, 기쁘게 선물을 받은 노숙자들은 과자에 든 쪽지를 보고 과자 하나하나에 담긴 스승님의 특별한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동수들은 많은 방편법 수행자들과 함께 이번 행사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심지어 어린이와 청소년 동수들까지 수저를 놓고 선물을 나눠 주

는 등 열성적으로 행사에 동참했으며, 이 외 일부 동수들은 일을 돕기 위해 워싱턴에서부터 차를 몰고 달려오기도 했다!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은 신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었다! 이제 오리건 센터 동수들은 또 다른 깨달음의 한 해, 사랑과 무아의 봉사로 가득 찼 2004년 새해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 소식

지상 천국이 지금 바로 이곳에!

인디애나 뉴스그룹

성탄 휴가 때마다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는 미국 중서부 지역 선 행사를 개최해 온 인디애나 센터는 올해에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단체명상 시간을 갖고 명상 후에 경축 행사도 가졌다. 중서부 지역 사형사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이번 행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이 가득 찬 가운데 즐거움과 사랑이 한껏 만발했다.

둘째 날에는 센터에서 경축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학생 등 여섯 명의 동수들이 인디애나폴리스 중심가의 호라이즌 보호소를 방문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이름으로 인디애나폴리스의 노숙자 보호소를 정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앤디 포드 담당 과장은 호쾌하고 매우 개방적인 모습으로 사형사저들을 따뜻이 맞이하는 한편, 가까운 미래에 노

숙자들에게 채식 식사를 제공하려는 동수들의 뜻을 환영했다. 동수들은 점심 식사 시간 동안 호라이즌 보호소의 친구들에게 100여 개의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직접 나누어 주었다.

인디애나 센터의 여러 활동에 참여한 동수들에게 있어 지난 2003년은 영적 성장의 결실이 풍부했던 한 해였다. 스승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동수들은 지상 천국이 바로 지금 이곳에 있음을 느끼고 있다!





미국 뉴저지 소식

잊지 못할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 행사

뉴저지 뉴스그룹

2003년 12월 27일과 28일 뉴저지와 뉴욕,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그리고 캐나다의 어린이를 포함한 약 200명의 동수들이 뉴저지 센터에 모여 최초의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선 행사를 치렀다. 참가자들은 모두 센터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센터에서는 아름답고 즐거운 분위기를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동수들에게도 전해 주기 위해 별도로 축복 과자와 과일을 준비해 두었다가 5개 지역 연락인들에게 분배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동수들은 가장 기억에 남을 이 크리스마스 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의 은총에 감사드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스승님의 사랑이 재향 군인들의 가슴을 녹인다

토머스 새멀스키/ 샌디에이고

대부분의 성탄절 행사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탄절은 집과 가족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있어 더욱 견디기 힘든 때이다. 그래서 샌디에이고 센터 동수들은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에게 성탄절 이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실속 있는 물품들을 선물함으로써 다소나마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동수들은 2003년 11월 말부터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 필로 된 담요 원단을 1인용 담요 크기로 잘라 솜씨 좋게 가장자리를 감친 뒤 견본 책자와 뉴스잡지 한 권, 따뜻한 스웨터 한 벌, 두꺼운 면양말, 털모자, 맛있는 초콜릿 한 상자 등과 함께 담았다.

몇 주간 조사하고 전화로 문의한 끝에 샌디에이고의 집 없는 재향 군인들을 위한 노숙자 보호소를 찾아내 이곳에 선물을 전하기로 했다. 12월 21일 센터에 모인 동수들은 150개의 아름다운 선물 꾸러미를 여러 차량에 나누어 실었다. 키가 크고 체구가 좋은 중국인 사형 한 사람이 산타클



스승님의 사랑으로 포장된 성탄 선물들이 배송을 기다리고 있다!



보호소의 베트남전 재향 군인들과 함께한 동수들.



로스로 분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빨간 산타 모자를 썼다. 동수들이 보호소에 도착하자 재향 군인들은 선물도 내리지 않았는데 환호성을 질렀다. 동수들이 차 문을 채 닫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 그 중 버자드라는 명랑한 노숙자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형에게 바로 걸어와 “내 크리스마스 소원은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 행복이 깃드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형은 “정말 멋지고 자비로운 소원이군요!” 하고 답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법상 앞에 9개의 탁자 가득히 선물을 올려놓고는 노숙자 친구들을 위해 ‘I Wish You A Merry Christmas’를 불렀다. 그런 다음 우리 중 한 사형이 우리 단체를 대신해 이곳 거주자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자 모두들 큰 박수와 따뜻한 미소로 화답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산타클로스’와 다른 동수들은 한 사람씩 선물을 나눠 주며 진심 어린 성탄 인사를 건넸다.

동수들은 노병들과 개인적으로 담소를 나누면서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휠체어를 탄 돈 미겔 씨는 스승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스승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군요.” 한 사형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스승님께 전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선물 꾸러미 안에 든 책자를 보면 스승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카메라에 찍히는 것도 모른 채 스승님의 뉴스잡지를 읽는 데 열중하고 있는 재향 군인.

이 행사는 노숙자 친구들과 보호소 직원들, 그리고 우리 동수들 모두에게 있어 큰 선물이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획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일도 우리에게 큰 힘과 고양감을 주었다. 사랑과 자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소식

기쁨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

서울 뉴스그룹

서울 센터는 2003년 12월 20일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가졌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춤추는 산타클로스, 눈사람, 꽃, 그리고 하얀 눈이 뿌려진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 장식 등 단상이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꾸며져 즐거운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자아냈다.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전국 센터의 동수들과 손님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경축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다

장쉬에원/ 타이베이

스승님의 무한한 은총 속에 지구는 2003년 대규모적인 일대 정화를 거치게 되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경축하기 위해 12월 21일 4천 명이 넘는 동수들과 친구,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시후 센터에서는 멋진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다.

이날 멋지고 재미있는 공연 프로그램은 모두를 위한 날을 더욱 빛내 주었다. 그 중 시후 센터를 순회하며 즐겁고 신나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춤을 춘 산타클로스 밴드의 공연 덕분에 센터에는 들뜬 분위기가 넘쳤으며 즐거운 웃음소리와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었고, 포모사 각 센터에서 제공한 맛있는 채식 요리와 창의적인 게임들도 다양하게 선보였다. 한 손님은 “저는 칭하이 무상사의 용기에 정말 탄복했습니다. 십수 년 동안 여러분을 데리고 이곳을 이처럼 아름답게 바꿔 놓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얘기했다. 중국에서 온 한 동수도 감격스런 마음을 표현했다.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이 성대한 크리스마스 경축 행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의 놀라운 안배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포모사에 머무는 요 며칠 동안 매일 성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스승님의 고양된 힘을 더욱 강렬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에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성인들의 탄생을 기쁘게 나누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 세계를 고양시키고 계신 스승님의 크나큰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되는군요!”



감로법어

❖ 좀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좀더 민감한 의식으로 자신을 고양시키십시오.

칭하이 무상사/ 1992. 6. 18. 미국 뉴저지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256

❖ 명상 자체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깨어난 힘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신이다’라는 깨달음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지요.

칭하이 무상사/ 1999. 5. 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7



크리스마스에 반추해 보는 인생의 프랙탈

매튜 서피스 사형/ 호주 시드니 (원문 영어)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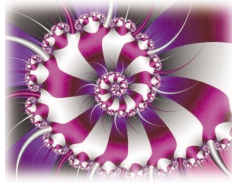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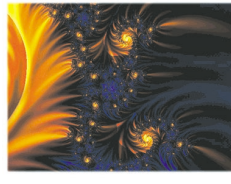


그림 3

물질 세계와 정신세계 안에는 일부가 무한 확장을 거듭하며 전체 형태를 이루는 무수한 형태와 상징물이 존재한다. 물질 세계의 경우, 솔잎을 관찰해 보면 이것이 길고 가느다란 형태를 갖고 있는데, 뒤로 물러나 솔잎으로 구성된 소나무 전체를 바라봐도 역시 길고 가느다란 모양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이렇게 부분이 모양과 형태를 반복해 전체를 이루는 것을 물리학에서는 프랙탈(Fractal)이라고 한다. 나선형에서도 또 다른 프랙탈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선형의 모양은 점점 넓어지는 곡선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그림 2)

이 같은 원리는 바다의 파도, 다양한 나무, 심지어 우주의 행성계 등 다른 자연 현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태양계의 경우, 태양계를 이루는 많은 행성들이 태양과 모양이 비슷하며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그리고 태양은 주위 행성들의 크기나 중량을 몇 배 늘린 것이다. (그림 3) 이러한 관계는 원자 구조의 원자핵과 그 주변을 둘러싼 전자에서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넘원자입자(subatomic particles) 또한 나선형의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태양계의 프랙탈 현상은 우주의 모든 단계에서 쉽게 감지된다.

영적인 방면의 프랙탈적 비유는 신의 위대한 본질과 우리가 내면의 신과 재연결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성품의 유사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음법문을 수행할수록 이런 유사성은 점점 명백해지며, 이는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음류의 ‘프랙탈’이며 ‘말씀’이 곧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비록 이 두 ‘소리’의 모양과 표정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본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명(共振)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살아 계신 스승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신 건 대규모적인 평화와 새로운 탄생의 순환, 그 시작을 알리는 것임에 분명하다. 이때 사람들은 입문을 통해 본성과 재결합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우주 프랙탈을 확장할 기회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전 지구도 깨달은 스승의 존재를 통해 이로움을

누리게 된다. 스승이 육체로서 존재하는 동안 모든 중생들은 이처럼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세상은 옛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그의 삶은 짧았으나 그의 업적은 그의 시대, 그리고 미래의 수많은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스스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낡고 오래된 모습을 떨쳐 버리고 내면에 존재하는 신(神)의 프랙탈로서 재배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 자신을 정화하기로 했으니 자신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리다 보면 인류 전체의 의식도 함께 고양될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에게 관음법문을 수행할 기회를 주시고 인류에게 한없는 축복을 베푸시는 사랑하는 스승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스승님은 우리의 살아 있는 스승이시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신의 진정한 화신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방식을 통해 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스승님의 선물로 인해 매일매일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된다.



우리 가족을 살피시는 전능한 힘

중국 본토 동수 (원문 중국어)

9년 전 입문한 후 나는 영광스럽게도 스승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내 아내도 입문하지는 않았지만 스승님을 깊이 사랑한 나머지 9년 동안 완전 채식을 하고 있으며 스승님의 화신이 자신을 구하시는데 모습도 몇 차례나 목격한 바 있다. 하루는 하얀 옷을 입으신 스승님의 새 사진을 구해 오자 아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를 구하러 오실 때 스승님이 이 차림을 하고 계셨어요!” 아내는 특별히 아름다운 액자를 구입해 그 사진을 넣고는 수년 동안 사무실 책상에 놓아두고 있다. 그녀는 매일 스승님의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가슴이나 목에 걸며 언제나 신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입문한 후 스승님은 우리 가족을 줄곧 돌봐 주셨을 뿐 아니라 아내가 작은 회사의 경리에서 큰 회사의 재무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면접 당시 그 회사의 인사부장은 아내가 채용한 스승님의 법상을 즉시 알아보며 자신 또한 스승님을 알고 있으며 빈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에 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옆 병상에 입원해 있던 동수가 그에게 스승님의 견본책을 준 적이 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태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던 중 혼자 여행 중이셨던 스승님이 그에게 다가와 수속을 마치는 동안 당신 짐을 좀 봐 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다. 스승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그가 스승님을 알고 있으며 견본책자도 읽었다고 말씀드리자 스승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작은 연꽃 기념품을 주셨다. 그는 지금껏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해 왔다.

인사부장과 아내의 인터뷰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들의 대화는 주로 스승님과 신에 관한 것이었다. 아내는 채용된 후 예전 회사에서보다 두 배나 많은 봉급을 받게 되었다. 경리에서 재무부장으로 진급된 경우는 아내가 처음이었다. (당시 아내는 경리로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재무부장의 경우 보통 나이 지긋한 사람이 맡는 게 적합했다.) 아내로선 직장 생활에서 대단한 진급이었다.

내 칼슘 함량 지수를 무료로 측정해 주었다. 우리 앞에 검사한 사람들은 열이면 열, 모두 칼슘이 부족하다고 나왔다. 우리 가족 세 명도 한번 검사해 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칼슘이 부족하지 않다는 곡선이 그려졌는데, 우리 가족이 한 사람씩 검사할 때마다 더 좋은 수치가 나왔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우리에게 매일 무슨 음식을 먹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채식해요!”

또 아내의 회사에서 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했는데, 9년 동안 채식해 온 아내는 대부분의 검사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특히 혈액 측정 결과에 놀라워하며 자신의 오랜 진료 경력 중 이렇게 좋은 수치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

스승님에 대한 일념으로 소생하다

채식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

한번은 칼슘 상품 영업 사원이 우리 지역에 찾아와 주민들의 신체

중국 동북 지역에 살고 있는 사오위안은 스무 살 된 청년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적이 있다. 한번은 병이 심했을 당시 우연히 동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동수는 그에게 곤란이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칭하이 무상사의 이름을 외우라고 알려 주었다. 그날 밤 샤오위안은 상태가 위험해지면서 무시무시한 두 귀신이 자신의 발을 붙잡고 소름끼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분명히 보았다. 귀신들이 자신을 거대한 단두대에 밀어넣으려 하자 그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발버둥쳤다. 이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문득 스승님의 명호가 떠올랐다. 그가 스승님의 이름을 끝까지 외우기도 전에 황금빛이 나타나 그를 데리고 칠혹같은 어둠의 장애를 통과해 대단히 아름다운 경지로 이끌었다.

얼마 후 샤오위안이 깨어나 보니

여러 명의 의사들이 놀란 눈을 하고 에워싸고 있었다. 의사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후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으며, 채식 을 시작하고 얼마 후엔 스승님께 입문까지 하게 되었다.

늙은 농부의

신나는 선 행사 참가기

중국 본토 동수 (원문 중국어)



2000년 초 허베이성의 한 농촌에 사는 나이 지긋한 사형은 우연히 영능력을 갖고 태어나 채식 을 하며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를 만나 이런 말을 들었다. “당신은 앞으로 몇 달 뒤에 외국에 나가 당신의 스승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난 외국이라곤 나가 본 적도 없는 늙은이인 데다 해외여행을 할 만한 돈도 없는걸요.” 사형의 말에 이 영능력자는 이렇게 말했다. “때가 되

면 스승을 만나러 갈 때 누군가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국제선이 있다는 소식이 중국 본토에 전해졌다. 사형이 부탁한 적도 없건만 베이징의 한 신실한 사형이 그에게 여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또한 사형 부부의 출국 수속까지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서 사형과 사저, 단 두 사람만이 그 지역에서 스승님을 뵈러 갈 수 있었다.

선 행사가 끝난 후 사형은 가피 물을 따로 한 보따리 받았다. 가피 물을 잔뜩 가지고 집에 도착하니 백 명이 넘는 동수들이 스승님과 선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그 가피물이 갈망하는 이들 영혼들을 위해 안배된 것이란 걸 깨달았다!



❖ 폴란드 소식 ❖



[우츠] 우츠 수행자들은 폴란드에서 가장 큰 강인 비스투라 강변에 위치한 부어츠와벡(Wloclawek) 시의 '심령 감응 협회'의 초청으로 2003년 11월 21일 이곳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에게 스승님과 관음법문을 소개했다. 부어츠와벡으로 가는 길과 강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동수들은 스승님의 강한 격려와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홍법 팀이 강연장에 도착하자 행사 주최측에서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 중 몇몇 사람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번 행사는 폴란드에서 최초로 열린 비디오 강연회였기 때문에 동수들은 참으로 감격스러웠다. 강연장에 걸린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본 한 손님은 사진에서 발산되는 에너지가 느껴지며 스승님의 법상에서 흰색과 보라색 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우츠 연락인이 먼저 스승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도 함께 나누었다. 이어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이 상영되자 참석자들은 주의를 한데 모아 비디오를 시청했다. 상영이 끝난 후 손님들은 맛있는 채식 팬케이크와 파이 등 풍성한 요리를 즐겼으며 많은 이들이 맛과 요리 솜씨에 크게 감명을 받고는 조리법을 물어보았다. 이 밖에도 세속 생활과 수행을 결합시키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 동수들은 관음법문은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수월하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며 시간이 흐르면 수행하면서 세속

생활의 요구 사항과 조화를 이루는 게 쉬워진다고 간단명료하게 얘기해 주었다.

이미 채식을 하고 있던 많은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였으며 방편법과 관음법문 입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부어츠와벡 시의 라디에스테틱 협회가 후원한 이번 홍법 강연회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 깊은 행사였다. 다년간의 수행 끝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홍법 활동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츠의 사형사저들은 심령 감응 협회 회원들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할 기회를 가진 것에 매우 기뻐하며 앞으로 보다 많은 홍법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 미국 소크라호마 소식 ❖



[오크라호마] 2003년 추수감사절 주말, 오크라호마 동수들은 오스틴과 미주리, 보스턴 동수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선이 행사를 개최하며 오크라호마 센터의 개관 1주년을 기념했다.

선 행사 둘째 날 저녁에는 뉴스잡지에 스승님의 그림에 대해 주옥같은 많은 평론을 실은 바 있는 화가 하감탐 선생이 참석해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세계 각지에서 창작된 스승님의 작품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 선생은 풍부한 미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구도와 아름다운 붓 터치, 선명한 색상 등 여러 각도에서 스승님의 작품에 담긴 아름다움과 독특하고 개성적인 기법을 설명하는 한편, 자고 이래로 동서양을 통틀어 시각 예술 분야에서 스승님과 같은 영적 수준에 이른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다. 그 중 가장 뛰어난 점은 스승님의 모든 창작품들이 색채가 뛰어나면서 내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어 수행자들의 영적 진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스승님이 이전에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님은 그림을 배우거나 미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지만 천상의 영감을 통해 이처럼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실 수 있었다.



오크라호마의 2003년 추수감사절 선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스승님의 그림이 전달하는 무상예술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히 여겼다. 선 행사가 끝난 후 모든 이들의 마음속은 아름다운 심미적 추억과 깊은 법열로 가득 찼다.

❖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



[토론토] 오늘날 과학 기술과 물질적 이기가 고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물질 영역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토론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회 연례 요가 대회 및 토론회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행사였다.

캐나다 요가 수행자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연례 모임인 이번 행사에





참가한 동수들은 대회를 통해 진정한 스승을 찾는 신실한 구도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를 찾았는데, 이들은 매우 심오한 영적 질문을 하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요가 선생인 한 방문자는 마침내 진정한 스승을 찾은 데 대해 떨 듯이 기뻐했다. 이전에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스승님을 알게 됐거나 토론토에서 열린 우리 단체의 흥법 행사와 전사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 부스를 방문하면서 스승님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 중 방편법을 신청한 한 할머니는 “요가 수행보다 이 명상법이 훨씬 더 좋군요. 양로원에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눠 줘야겠어요.” 하고 말했다.

행사가 끝날 즈음 우리 부스를 급히 찾아온 한 여성은 나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번은 손님과 함께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관음보살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녀에게 훗날 대자대비한 관음보살이 그녀의 영적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이날 우리 부스 위에 둘러진 ‘관음법문’이라는 현수막을 보고선 그때 일을 떠올리고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관음법문의 우수함을 이해한 후 “칭하이 무상사를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라고 말했다.

이번 ‘요가 대회 및 토론회’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동수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본 참관객들은 스승님과 동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 토론토 사형사저들은 살아 계신 스승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योग임을 가슴 깊이 느꼈다!

❖ 태국 소식 ❖

아름다운 북부 지방에 무상의 가르침을 전하다



[치앙마이] 2003년 11월 23일 태국 동수들은 북부 치앙마이에 있는 위빠라치 대학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를 가졌다. 치앙마이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고대 사원과 우뚝 솟은 산봉우리, 그림처럼 아름다운 간헐천, 그리고 손님들에 대해 후한 이곳 원주민들의 인심으로 유명한 곳이다.

동수들은 대중 매체를 통한 방송과 전단지 배포,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이번 행사를 알렸다. 이에 따라 많은 구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학생들을 데리고 온 치앙마이 대학의 종교학 교수는 젊은이들이 관음법문을 이해하고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했다. 많은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큰 감동을 받았다. 그 중 한 중년 남성은 강연장 앞을 조깅하다가 근처 나무에 붙어 있는 스승님의 포스터를 보고서 행사에 참석하고픈 마음이 강렬하게 일었으나 옷차림이 마땅치 않아 걱정했다. 그러나 신실한 열망과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행사에 참석해서 방편법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이전에 화를 잘 내고 싸우는 성격이었지만 10월에 있었던 ‘전통 불





교 음식 축제' 기간에 채식을 해본 후 성질이 많이 온화해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채식하기가 아주 쉬울 것이라고 얘기했다.

비디오를 시청한 후 참가자 중 1/3가량이 방편법을 배웠고 일부는 입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방편법을 배운 많은 이들이 좋은 체험을 했으며, 그후 모두 모여 맛있는 채식 식사를 함께 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비디

오 강연회는 스승님의 사랑과 무한한 빛 속에서 유쾌하고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게 되었다.

❖ 대한민국 소식 ❖

용감한 소방관들을 위한 비디오 강연회



[부산] 2003년 11월 부산 남부 소방서에서는 아주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비디오 강연회가 열렸다.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한국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스승님께서 보내신 5만 달러 중 일부가 태풍 구조 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들에게 전달된 바 있는데,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심에 감명을 받은 성용판 소방서장의 특별한 요청으로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 명상법을 소개하는 비디오 강연회가 11월 8일 제41회 소방의 날에 열리게 된 것이다.

약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먼저 성용판 소방서장이 우리 동수들을 소개하고 스승님과 관음법문 수행의 이로움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명상은 좋은 것이니 될 수 있는 한 많이 배우라고 격려했다. 비입문자이면서도 스승님에 대해 정확하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 성 서장의 설명은 모든 동수들에게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성 서장과 고위 간부들을 비롯해 여러 소방관들이 방편법을 배웠다.

일전에 스승님의 위로금을 받은 김성기 소방관은 스승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 뒤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소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생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편법을 배운 황정식 차량 반장은 “오늘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방편법을 배웠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명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 김주인 화재 조사 반장도 방편법을 배운 후 이렇게 말했다. “오늘 잠깐 명상을 했지만, 앞으로 제 삶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수행하면서 제 진아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신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수행에 매진하겠습니다. 분명 좋은 성과와 진전이 있으리라 믿



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다른 소방서에도 이 소식을 전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인 성판용 서장은 스승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은 매우 아름다우신 데다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더군요. 제자들에게 보시도 받지 않고 창작 활



동으로 전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을 알고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초의 관공서 초청 강연이라는 점에서 뜻 깊은 행사였다. 또한 여타 대규모 비디오 강연회 때처럼 대량의 전단지과 포스터를

통한 홍보 활동은 없었지만 큰 성공을 거둔 면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도 했다.

스승님의 법음(法音)이 대구에 흐른다



[대구] 대구 동수들은 2003년 11월 9일 각 지역 센터 동수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것이었다.

유서 있는 수성관광호텔의 연회장을 강연회장으로 빌렸는데, 격조 있고 화려한 곳이었다. 강연장 주변은 동수들이 손수 만든 꽃으로 장식되었고, 우아한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은 사자들이 강연회의 품위를 더했다. 로비에는 스승님의 그림과 등을 아름답게 전시했고, 티 테이블을 준비하여 먼저 온 손님들이 차와 과자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 특별한 영성 강연회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2시간이나 일찍 행사장에 나온 손님들을 통해서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강연장의 300좌석이 금방 차서 70석을 추가로 마련했지만 그 역시 곧 만석을 이루었다.

많은 손님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에 귀기울이며 진리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정확히 백 명이 방편법을 배웠다. 그 중 오랫동안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 온 한 방편법 수행자는 이번 강연 포스터를 보고서 ‘바로 이거다.’라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곤 강연장을 찾아와 방편법까지 배우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참석한 사람들 각자에겐 견본책자와 스승님의 뉴스잡지가 나눠졌으며, 그 중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줄 여분을 챙겨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대구 센터는 쏟아지는 문의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에 대해 알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 대구 센터는 일주일 후 새 방편법 수행자들을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모두들 풍성한 채식 요리를 즐기며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이날 입문을 신청한 사람들도 여럿 되었다.

갈망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관음 가족에 합류해 일세 해탈할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의 무한한 은총에 감사드린다.



많은 참석자들로 순식간에 만석을 이룬 대구 비디오 강연회.



열의에 찬 참석자들이 방편법을 신청하다.



손님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스승님의 출판물을 탐독하며 그 가르침에 큰 관심을 표명하다.



❖ 포모사 소식 ❖

야자수 길에서 천상의 왕국까지



[타이베이] 국립 대만대학 '광음회' 소속 동수들은 2003년 11월 15일 캠퍼스에서 '황금시대의 새로운 삶-채식 세대, 건강하고 이상적인 생활'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포모사 북부 지역 대학생 동수들은 아침 일찍부터 대만대 야자수 길에 모여 열의를 다해 행사장을 장식하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관음법문의 메시지가 캠퍼스 곳곳에 전해지길 바랐다.

방문자들을 마주보는 부스 중앙 뒷벽에 스승님의 법상을 걸고 그 양쪽 벽에는 스승님의 그림 '산죽과'와 '마음속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를 걸어서 완벽한 조화를 연출했다. 또한 TV 화면으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가 상영되는 동안 동수들이 방문객들을 열렬히 맞이함으로써 이날 내내 방문객이 밀려들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스승님의 요리책인 『무상주방』은 건강과 채식에 관련된 다른 책들과 나란히 진열되었는데, 인연 있는 두 명의 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발빠르게 부스를 찾아 차례로 이 책을 특별히 요청해 구입해 갔다. 이 밖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질문을 했으며 그 중 많은 이들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정오가 되기도 전부터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부스 뒤의 잔디밭에서 방편법을 배우기 위해 기다리는 등 그들의 신실함과 갈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열렬한 구도자들은 오후 2시에 방편법을 전수받고 정식으로 관음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일부 동수들은 방편법을 전수하는 동안 자신의 친척들이

'방편법 열차'에 탑승함으로써 지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즐기고 그들 얼굴에 기쁨과 만족의 빛이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책장에 꽂혀 있던 스승님의 요리책과 견본책, 다른 출판물 등을 인연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남은 빈자리와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의 얼굴에 깃든 평온과 고요함을 보면서 동수들은 이번 국립 대만대학 홍보 활동이 성공적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행사에 참가한 사형사저들은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이 즉각 깨달음과 일세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의 횃불을 계속해서 전해 나가기로 했다.





스승님의 축복이 2003 전국 종교 박람회를 감싸다

천후이원/ 지아이



[지아이] 2003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도우난 종합운동장에서 연례 행사인 전국 종교 박람회가 열렸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올해 행사에도 참석해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주제를 내걸고 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한편 스승님의 출판물도 멋스럽게 전시하면서 특히 이번에 출판된 스승님의 지혜 만화집 『신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1월 7일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님의 강연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고 이어서 방편법을 전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스승님의 놀라운 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보아 주시고 인연 있는 사람들이 제때 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신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중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도 있었다. 행사 전날 밤 어떤 종교 단체에서 우리를 찾아와 의논을 했다. 당초 예정됐던 그들의 행사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 우리 비디오 강연회가 끝난 후 바로 하게 되었는데, 행사 진행을 돕기 위해 우리 강연회 전에 미리 좌석을 배치해도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는 흔쾌히 동의했다. 다음날 우리는 좌석 배치가 아주 잘된 데다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상영하는 동안 그 회원들이 열심히 귀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번 종교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종교인과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더 나아가 방편법을 배우거나 입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 방편법 수행자는 행사장에 오게 된 과정을 얘기해 주었다. 그날 길을 잃었던 그녀는 박람회장의 밝은 불빛을 보고 들어왔다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스승님의 매혹적인 이미지에 깊이 끌렸다고 한다. 그녀는 관음법문에 입문하고 싶다는 신실한 바람을 밝혔다. 한 신사는 방편법을 배울 때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내면의 비전을 체험하기도 했다.

2003 전국 종교 박람회에 참여한 동수들은 이 지역 주민들이 관음법문을 접하고 스승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아 유형, 무형으로 고양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부스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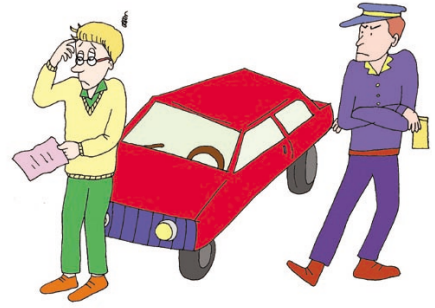
박람회의 초점이 된 대형 스크린을 통한 흥법 강연회.



아주 예의바른 경찰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7.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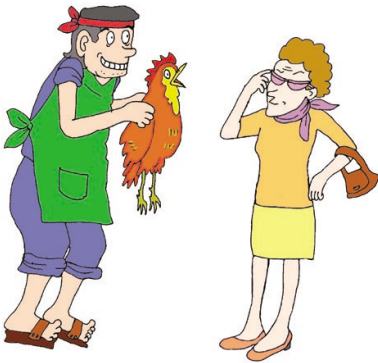
타자기를 수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빌딩에서 타자기를 고쳐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 보니 차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니다. 대도시에선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대 놓고는 앞 유리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는 조셉 골드스미스입니다. 건물 안에서 작업 중입니다.” 그는 이렇게 쓰면 작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했다는 걸 경찰이 알 줄 알았던 겁니다. 타자기를 다 고치고 나오니 그가 붙인 메모 옆에 이렇게 써 붙인 메모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저는 제레미 플래글러입니다. 경찰관인데, 건물 밖에서 작업 중입니다.” 주차 위반 딱지와 함께 말이예요.



오늘의 특별 상품: 물건은 하나, 가격은 둘

청하이 무상사/ 2002.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어떤 여자가 닭집에 닭을 사러 왔습니다. 점원은 닭 한 마리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20달러입니다.” 그러자 손님은 “너무 작네요. 더 큰 건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더 큰 닭이 없었던 터라 점원은 그 닭을 갖고 안에 들어가 다시 무게를 재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더 큰 닭이 있군요. 30달러입니다.” 그러자 손님이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둘 다 주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청하이 무상사/ 2001. 12. 27.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4

어떤 사람이 신에게 복권을 당첨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주 기도를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당첨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는 울면서 신께 말했죠. “저는 복권에 당첨되면 집을 지으려고 몇 년 동안이나 기도드렸는데, 왜 한번도 안 들어주시나요?” 그래서 신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까지 복권을 한번이라도 산 적이 있느냐?” 이에 남자는 말했죠. “없는데요.”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48/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48/jk1.htm> (미국)



영성의 빛이 우주를 비추게 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2. 5. 9. 포모사 사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44

우리의 진정한 생일은 입문한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며 『도덕경』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 ‘도(道)’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입문의 순간이 우리의 진짜 생일이지만 우리에게 물리적인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육체가 세상에 나온 날이 생일이 됩니다. 상서로운 길일에 태어났으면 자라서 세상에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요.

우리에게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라는 연례 경축일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이 두 분, 깨달은 스승들의 생일을 경축합니다. 그들의 생일을 경축할 때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생스럽게 고집 센 세상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개인적인 생활과 안락한 시간, 젊음을 다 희생했습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같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들처럼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아주 작고 약하다고 생각하면 약하고 작게 될 것이며, 자신을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위대해질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되라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믿음은 모든 수행과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시방 삼세 불보살도 우리를 구제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해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진보를 원하고 대지혜를 얻고 싶다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



니다. 어느 누구도 우릴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위대한 부처나 스승을 숭배하면서 자기 내면에도 그와 똑같은 대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의 노고를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에 상반되는 거지요.

석가모니 부처는 “나는 이미 성불했다. 너희 역시 장차 성불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내가 하는 일은 너희도 할 수 있으며 더욱 잘할 수 있다.(요한복음 14: 12)”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엔 기억해야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세세생생 세뇌당하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제도를 따르면서 스스로를 비하해 왔습니다. 심지어 나무토막이나 나무, 바위에 대고도 엎드려 절하죠.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더 자신의 지위를 떨어뜨릴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조차 잘못된 개념을 갖는 것만큼 끔찍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퇴폐적인 삶과 개념에 빠져 있는 건 이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일어나 자신을 위해 싸우려 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세생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가 최악의 행성인 건 아닙니다. 더 심한 행성도 있지요. 이 지구에는 그래도 우리 생각을 바꿀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아직까진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되어 있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지는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서 다만 우리가 너무 게을러 바꾸지 않는 것뿐이지요. 하지만 어떤 행성에 사는 사람들은 바꿀 기회조차 없습니다. 다른 행성의 존재들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무기들로 그들을 조종하며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도록 만듭니다. 사실 무기라기 보다는 첨단 과학 기술인 셈이지만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통제를 받는다면 정말 무섭고 비참한 일입니다. 육체만 통제 받는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생각과 지혜까지 통제를 당한다면 대단히 끔

찍한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끊임없이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전을 외우거나 책을 읽을 때 그 의미를 모르거나 또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른 누군가를 믿고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전의 진짜 의미는 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인도하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사람 다 무지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큰 문제지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 이로움도 주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나 부모님, 선배들도 그로부터 아무 이로움을 받지 못했는데도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이유로 믿습니다. 이런 제도, 이 철학이 사실인지, 거기서 어떤 증거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한치의 의문도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일생을 보냅니다.

수행자는 온 우주를 밝힌다

나는 요 몇 년 사이에 동수들이 늘어나면서 세상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깨끗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동수들조차 놀라워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놀랄 게 없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우리 내면의 빛은 무한하며 우리 내면의 평온과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 사랑과 평온함은 모든 벽을 뚫을 수 있고 어떤 경계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모사에서 수행하는 것은 포모사 사람들에게만 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산하는 빛은 전 세계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무형의 이로움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동수들이 있는지 압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우리 동수들이 있는지 아나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무한한 사랑의 힘은 제쳐



두고서 우선 그들의 삶부터 한번 봅시다. 그들은 채식
을 하고 살생을 하지 않으며 흠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하며 믿음직스럽고 평화로우며 세상의 홀
륭한 시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행의 결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라든가 우리가 세
상에 전하는 무형의 이로움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
습니다.

우리 동수들은 사업도 정직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
는 일마다 아주 솔직하고 청렴하며 공명정대합니다.
또 동물도 죽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
리는 채식을 해서 우리 사랑을 인간뿐 아니라 만물에
까지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이 우리 동수들
처럼 된다면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행은 참으로 이로운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
는 힘이나 무형의 신통은 우리끼리만 압니다. 외부 사
람들에게 말한다면 아마 동화처럼 들려 사람들은 반
신반의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는 우리
동수들끼리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보여 준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에 나
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물론 나는 좀처럼 여러분을 칭
찬하거나 나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지만 여려
분 모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고 있으리라 믿습
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수행하는 사람끼리 알면 됐
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서로를
그리 많이 칭찬하지 않는 반면 서로의 단점이나 부족
한 점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도와줍니다. 이 점이 중요
하지요.

수행의 진보는 끝이 없다

진선미(眞善美)는 1, 2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며
신의 무한한 지혜는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어
느 누구도 전부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렇다면 깨달음에 끝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다가 아
무리 광대해도 그 끝에는 육지가 있기 마련이지만, 신
의 지혜와 우주의 에너지는 영원토록 배워도 끝이 나
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충분히 배웠다, 수행하고

채식하고 매일 명상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
니다. 그것으로 결코 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배우고 있지요.

만약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건 신을
알보는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해서 그 누구도 전
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도를 이
루면 우리는 그를 일러 ‘무상정등정각’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상정등정각의 등급에 들어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지는 경계가 있거나 고
정된 지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불했다고 끝
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단지 성불한 후
에는 배우기가 더 쉽고 편하다는 것뿐입니다. 예전만
큼 고생스럽지 않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대학을 졸
업한 후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선생님의 제지도
없기 때문에 배우기가 다소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곤 할 수 없는 거지요.

입문한 제자들은 이미 불퇴보살의 과위에 들어섰
습니다. 계속해서 배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석가모니 부
처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대해질 자격이 생긴 것입
니다. 사실 동수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다
를 바 없이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것처럼 많
은 석가모니 부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
니 그냥 평화롭고 조용하게 수행하면 됩니다. 다른 이
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성에서 여
러분을 빌려 갈지 모릅니다. 어찌면 다른 행성에는 부
처가 없어서 우리 제자들을 빌려 가려 할지도 모르죠!
빌려 가려면 UFO를 수십 대는 보내 줘야 합니다. 그
리고 내가 흥법하는 데 쓸 UFO도 몇 대 내주어야 하
고요. 그러면 빌려주겠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진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리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흥법을 하거나 한 나라에 머물거나 다 좋습
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한한 힘이 온 세상에 퍼
질 것이란 점입니다. 스승은 이 육신이 아닙니다. 여
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히 위대하지
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



다. 세상 사람들은 매일 산과 강, 귀신, 나무, 바위를 숭배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등급만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모두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곤 그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걷기를 선택한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좋아집니다. 퇴보의 길을 선택한 수많은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일단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일생을 낭비하게 되고 때로는 너무 늦어 바꿀 수도 없기도 합니다. 또 나라 경제와 성장력도 쇠퇴하지요. 한 번의 잘못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을 퇴보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진보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법문에 입문하긴 했지만 매일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진보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진보가 없는 부분은 빨리 고쳐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수행을 한 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매일 사용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이 슬고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이 지혜를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것처럼 위대한 영적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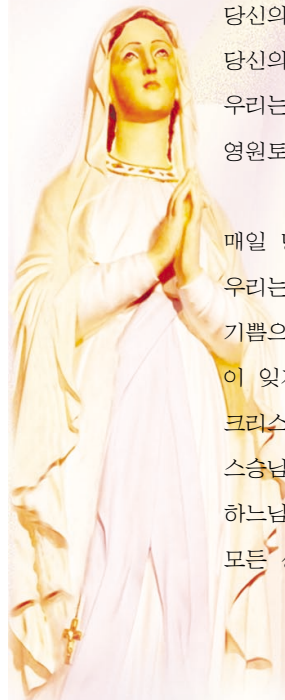
때때로 동수들은 내게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묻거나 아니면 비입문자들과 이야기할 때면 말이 술술 나온다고 합니다. 나처럼 말이지요. 그건 그때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없다면 사용도 못 할 테니 자기에게 지혜가 없다고 여기겠지요. 그러므로 지혜는 쓰면 쓸수록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소식을 나눌수록 우리의 공덕도 원만해집니다. 만약 자신의 수행에 아무런 진보도 없고 수행에서 아무 이로움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어서 흥법 활동에 참가해 보십시오. (스승님 웃음) 그리고 우리 가르침을 널리 알릴 방법을 궁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에게 지혜가 있는지, 진보했는지 바로 알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사랑하는 스승님
그 어디에 계시든
또 무엇을 하시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당신의 축복이 늘 일깨우시니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매일 당신의 선물을 받으며
우리는 시시각각
기쁨으로 성장합니다
이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맞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인께 감사드립니다.



루슬란 스타이코프 사형
불가리아 소피아 플로브디프



명사수의 백발백중 비결

재키 상뜨랭 사형과의 인터뷰

(원문 영어)



들어가며

재키 상뜨랭 사형은 브뤼셀 자유대학교 이공대학의 응용 심리학 교수인 동시에 한 고등학교에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풍부한 교육 경험을 살려 국가의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짬짬이 관심 있는 활쏘기에도 매진해 이름난 명사수가 되었으며 벨기에 양궁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야외 양궁 대회에서 금메달을 세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장난감이 없었던 재키 사형은 혼자 활과 화살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는데, 차츰 활쏘기에 애정을 갖게 되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벨기에의 울창한 숲에서 연습하면서 그 고적한 분위기로 인해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 다음 인터뷰를 통해 재키 사형은 수행에서 얻은 바와 깨달음을 나누는 한편 백발백중의 비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관음법문과의 만남

최근 몇 년 사이 동양 철학과 문화는 많은 서구인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재키 사형 역시 오랫동안 선(禪)과 심오한 여러 불교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관음법문을 접하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어느 날 브뤼셀의 어떤 대학에 갔는데 마침 그날은 ‘불교인의 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관음법문에 대한 세미나도 있었죠. 저는 그제 불교의 가르침에 관한 세미나인 줄 알았어요. 동양 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끝난 후 누군가가 건본책자를 건네주더군요. 그리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지요.” 재키 사형의 회상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건본책자 표지를 가리키며 ‘칭하이 스승님이시잖아요. 나도 어울락 친구들이 그분의 비디오테이프를 몇 개 준 적이 있어서 알아요.’ 하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건본책자와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비교하고 한동안 깊이 연구한 후 스승님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낀 나머지 관음법문을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주소를 찾아내 결국 아내와 함께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을 돌이켜보고 신과 직접 접촉하다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난 후 어떤 수확과 깨달음이 있었느냐고 묻자 재키 사형은 이렇게 말했다. “관음법문은 제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내면을 돌이켜



보며 신과 직접 접촉하도록 해줍니다.” 이어서 그는 ‘고요한 마음으로 하는 명상’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본에 여행을 온 한 영국 관광객이 일본 승려에게 “선(禪)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물었다. 승려는 “나를 따라오면 보여 드리지요.”라고 대답했다. 승려는 호숫가에 가서 물었다. “보세요! 이 물은 아주 맑아서 바닥까지 보이지요?” “네!” “지금 이 지팡이로 물을 휘저으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흐려서 안 보여요.” 하고 영국인이 말했다.

이에 승려는 이렇게 말했다. “선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명상할 때 물처럼 고요하다면 내면이 진아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한 상태라면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해야 합니다.”

재키 사형은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다. “내게 있어 명상은 내면을 돌이켜보고 신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발백중의 비결은 집중

활쏘기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특별한 예술이기도 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활쏘기와 수행 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재키 사형은 이렇게 말한다. “저한테 활쏘기는 명상의 일종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했듯이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 명상은 아니지요. 서서 하는 명상, 앉아서 하는 명상 등 명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저는 정말 활쏘기도 명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활을 쏘기 전과 쏠 때는 주의를 모아 집중합니다. 항상 오 불을 외우고 지혜안에 집중하지요. 눈을 살짝 감으면 내면의 스승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면의 빛으로 스승님을 뵈는 거지요.”

“과녁을 보는 것도 스승님의 모습을 볼 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도의 높은 경지에서는 사수와 과녁이 대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또 내면의 자아에 집중하는 습관이 들면서 명상은 일상생

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 문제의 핵심을 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섬광처럼 떠오르는데, 이 점에서 활을 쏠 때 과녁에 집중하는 궁도와 비슷합니다.”

채식으로 충분한 체력과 활력을 얻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은 영양이 부족하고 체력과 정신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재키 사형은 채식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활을 당기려면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채식을 시작했을 때는 몸이 약해져 활도 제대로 잡아당기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사람들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아서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동안 채식을 하고 보니 체력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정신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구력과 주의력이 향상되었죠. 그러니 그건 완전히 그릇된 생각인 거죠. 저 자신이 채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는 가장 훌륭한 실례이며 증거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도 이제는 채식의 이점을 알고선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레오폴드 기사 훈장을 받다



뛰어난 사수이자 열성적인 교육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교육자로 헌신하며 무수한 제자들을 길러 나라에 이바지한 공로로 재키 사형은 최근 벨기에 레오폴드 기사 훈장을 수여받았다. “레오폴드는 벨기에의 초대 국



왕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쌓고 나라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제 경우엔 대학에서 수년간 가르친 것이 해당하죠.)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열심히 봉사한 사람에게 국왕이 레오폴드 기사 훈장을 수여합니다.” 훈장에 대한 재키 사형의 설명이다.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26호를 보면 교육 특집에서 여러 분야의 교사, 교수 등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교사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 자신이 좋은 모범을 보여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을 때만이 학생들의 훌륭한 자질을 기르고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교직이 좋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벌지 못하지만 교사가 되어 젊은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니깐요.”

스승님께 드리는 감사의 말

인터뷰를 마친 후 재키 사형은 칭하이 스승님께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스승님!

스승님은 정말 제 인생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스승님을 알고부터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리 보입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저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언제나 고향에 가길 원할 것입니다. 세상은 환상의 무대일 뿐이며, 우리는 배우로서 매일 바빠 움직이며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애들아! 연극이 끝났다. 내가 너희들을 집으로 데려다 줄게.” 하고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 칭하이 스승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재키 샴프랭 드립

이 인터뷰는 썬 TV ‘예술과 영성’ 제55편에 방송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URL :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 중국어 자막)



감로범어



❖ 예정된 미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의 은총과 연결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9. 5. 11. 폴란드 바르샤바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7

❖ 천국은 평온하고 아무 욕망이 없으며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는 또한 열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2. 3. 3. 싱가포르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223



빛과 사랑, 희망, 기적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

예비 입문자 양쯔징/ 말레이시아 (원문 중국어)

사랑하고 존경하며 너무도 그리운 칭하이 스승님께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스승님을 알게 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 전 스승님은 꿈에서 수행하라고 일깨워 주셨죠. 그때부터 제 삶은 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마음속의 희열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방편법을 수행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명상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서 관음법문에 입문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입문하면 매일 더 오래 명상하고 내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스승님, 전 참을성도 없고 까다롭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방편법을 수행하면서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다른 사람의 왕가말부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이 저를 비난할 때도 개의치 않고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작은 골칫거리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잘 다스리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 참기 힘들면 얻은 스승님의 책과 뉴스잡지, 스승님의 사진을 보거나 스승님의 오디오테이프를 듣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곧 사라지지요. 그래서 전 스승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신께 크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함께 방편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방편법을 수행하기 전 매우 엄격하고 인색하셨어요. 특히 돈에 관해서는요. 하지만 수행을 시작하고부터는 아주 자상해지셨고 건강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를 본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의 젊은 모습과 건강에 경탄을 하곤 합니다. 사실 할머니는 여든이 다 됐는데도 몸은 아직도 정정해서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작년에 한 점쟁이가 말하길 할머니가 2003년 6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드리라고 저희 가족에게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종종 편찮으시곤 했습니다. 한번은 넘어져서 입원한 일도 있었는데, 거동도 못 하고 한 달 넘게 몸져누워 계셔서 모두들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전년 12월에 스승님을 알게 된 저는 할머니에게 스승님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고 채식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단번에 당신도 함께 채식과 수행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생활하시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십니다. 저는 매일 직장에 나가야 해서 할머니 홀로 집에 남아 계시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스승님께서 언제나 할머니 곁에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니까요.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님에 대한 제 마음과 감사는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님을 알게 된 후 저희

삶이 빛과 사랑, 희망, 기적으로 충만하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스승님은 저희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셨고 슬퍼할 때도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관심과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을 알게 된 후로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매번 스승님의 사진을 볼 때마다 속으로 거만히 생각해 보고 합니다. ‘스승님, 정말 뵙고 싶어요. 당신을 뵈게 되면 아이가 엄마에게 하듯이 스승님을 꼭 껴안고 싶어요. (이 생각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멈추질 않는답니다.) 또 스승님께 직접 저희에 대한 세심하기 이를 데 없는 보살핌에 정말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승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채식과 자비의 길

어린 양/ 일본 도쿄

최근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 스티브 로젠이 쓴 『초월을 위한 음식: 채식과 세계 종교』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왜 채식을 합니까?” 하고 종종 받았던 질문에 평소 해 왔던 답변을 생각해 보았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암을 예방하고 심장병을 개선하는 등 고기를 먹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서 건강상의 이점을 쉽게 대곤 했지만, 생각해 보니 채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바로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 말이다.

이 책에서 로젠은 십계의 여섯 번째 계명이자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인 ‘죽이지 말라’를 논하면서 이 말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백하게 지적한다. 저자는 또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는 ‘황금률’을 언급하면서 “동물 역시 ‘남’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고 되묻는다. 동물 또한 인간처럼 생명이 있고 숨쉬고 생각하며 사랑과 두려움, 분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의 구약, 유대교의 모세 5서(書)에 해당하는 성경의 앞 부분 46권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느님의 최초의 계획을 소개하면서 ‘태초에’ 인류는 채식하기로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과일이 인류의 음식이 되었으며, 신은 인간에게 물고기와 새, 그 외 다른 동물을 지배하도록 하셨다. 따라서 지구상에서의 인간의 ‘역할’은 최고의 ‘사장’ 밑에서 엄청난 이로움을 보장받는 가운데 ‘신의 정원’을 다스리고 돌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채식 음식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 왕국의 훌륭한 지배자라면 웅당 동물을 자비심으로 보살피며 그들의 안녕을 추구해야지 억압과 학대를 하거나 죽이거나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동물 지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인류는 마음

으로 이 피조물들을 죽이고 먹어치웠다.

구약성서의 『다니엘서』를 보면 동물과 자비로운 관계를 맺은 이들이 얼마나 큰 신의 은총을 받는지를 보여 주는 일례가 있다. 『다니엘서』의 주요 인물인 유대의 예언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바빌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아 바빌론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다. 한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유대인 친구 세 사람에게 바빌론 최고의 고기와 술을 하사하지만 이들은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대신 열흘 동안 야채와 물만을 먹겠다고 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처분하라고 말한다. 열흘이 지났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하사한 진미를 먹은 다른 학생들보다 건강해 보임으로써 계속 채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다니엘은 왕의 예언자 겸 해몽가가 된다. 그는 연이어 두 왕을 보필하다가 세 번째 왕인 다리우스 때 그만의 하느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 굴에 갇힌다. 이튿날 아침 다리우스 왕이 사자 굴에 왔을 때 다니엘은 하느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말한다. 이 사건에 대해 로젠은 “아마도 사자가 채식을 하는 성자의 지극한 사랑과 악의 없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구약성서 『이사야』 11장 7절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암소와 같이 누울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나온다. 이 예언을 뒷받침해 주는 채식하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http://www.vegetarismus.ch/vegetepet/tyke.htm>)에 나온다. 이 사이트에는 캘리포니아 히든 밸리 목장의 조지, 마가렛 웨스트부 부부가 돌보고 있는 암사자 리틀 타이크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다.

이 암사자는 채식 음식을 먹으려 했지만 웨스트부 부부는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과학 연구 때문에 4년 동안 줄곧 리틀 타이크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타이크는 채식 음식만 먹고서도 무럭무럭 잘 자랐으며 여타 사자와 똑같이 건강하다.

웨스트부 부부는 모든 동물이 하느님이 주신 푸른 풀을 먹게 돼 있다는 『창세기』(1: 30)의 구절을 어느 방문객이 상기시켜 주었을 때 비로소 리틀 타이크의 채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 사자는 아주 온순해져서 ‘가장 위험한 종(種)’인 인류를 포함해 모든 동물들이 다 그 옆에 누워 있을 수 있다. (사진 1)

인터넷에는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암사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주 1) 케냐 공원 순찰대원이 카무냐(축복 받은 자)이라고 이름 지은 한 암사자는 하루 종일 새끼 영양을 보호하고 하이에나나 자칼 등 다른 육식동물을 쫓으며 자기 자식처럼 새끼 영양을 돌보며 풀밭에 함께 누워 지낸다. 암사자가 새끼 영양을 입양해 함께 케냐 들판을 평화롭게 걷는 모습은 매우 놀라운 광경으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누워 있으리라.”는 성서의 예언을 입증해 준다. (사진 2)

이 두 이야기는 육식동물이 생존을 위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관점

을 일축한다. 또 『창세기』에서 인류에게 권해진 식물(食物)이 사자에게도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로젠은 또 예언자 모하메드가 채식주의자였지만 ‘영적 깨달음의 등급에 오를 준비가 될 뉘’ 고기를 먹는 추종자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교파인 수피교는 모든 신의 창조물에 베푸는 자비심의 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한 여자 수피교 성인이 많은 동물들에 둘러싸여 있다가 다른 수피교인이 다가오자 동물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다. 그 수피교인이 성인에게 동물이 도망간 이유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에게 최근 무엇을 먹었느냐고 묻는다. 그가 비계로 요리한 양파를 먹었다고 하자 그녀는 “그들의 기름을 먹었군요! 그러니 그들이 당신을 피해 달아난 것도 당연하죠!” 하고 대답했다. (주 2)

힌두교의 많은 경전들에서도 채식을 주장하지만 그 중 『마하바라타』(인도의 대서사시 중 하나)의 다음 구절은 육식의 과정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고기를 사는 사람은 자신의 부(富)로써 폭력을 행사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맛을 즐기므로써 폭력을 행사한다. 또한 동물을 죽이는 자는 동물을 잡고 죽임으로써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살생에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인터넷에는 한 도살장에서 있었던 얘기도 올라와 있다. 도살장 인부들이 점심 식사 후 쉬



(사진 1)



(사진 2: 출처-2002년 1월 7일자 케냐 『데일리 네이션』)



고 있을 때 도살을 당할 처지의 어린 양 한 마리가 우리에서 빠져나와 그들에게 다가왔다. 새끼 양이 그들이 먹던 샌드위치 속의 상추를 조금씩 뜯어먹자 마음이 무쇠같이 단단하던 인부들도 양을 쓰다듬으며 얼마 후 도저히 이 어린 양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냥 어린 양을 풀어 주었다. 이 이야기는 동물과 직접적인 교류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죽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설령 살생을 무수히 한 사람이라도 귀여운 동물과 직접 접하게 되면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위 이야기들은 채식을 하기 전에는 자비의 길을 걷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기를 먹으면 동물이 죽을 때 갖는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이 몸에 쌓이게 된다. 그러나 육식을 중단하면 신체는 정화를 시작하고 내면의 자비심도 자라난다. 때문에 채식을 한 후에는 사자조차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음법문 수행은 필수적이다. 칭하이 스승님의 다 음 말씀처럼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살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면 세상은 진작 평화로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식만 포기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주 1: <http://www.freerepublic.com/focus/fr/604076/posts>

* 주 2: 『초월을 위한 음식』 60쪽.



비폭력의 참뜻

칭하이 무상사/ 1994. 6. 20. 미국 뉴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36

비폭력의 계율은 가능한 한 항상 중생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피하라고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들을 해치거나 마음속에 폭력의 의도를 가져서도 안 되지요.

고의적인 살생과 우연한 살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살생이지만 상황이 다르지요. 나쁜 것은 살생의 행위가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우리 자신에게 나쁜 것이지, 죽임을 당한 존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폭력의 계율을 지키는 건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다른 중생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잃어도 다시 생길 수 있으니, 정말로 해를 입는 것은 죽임을 당한 중생이 아니라 죽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비폭력의 계율은 사실상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일깨우기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살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중생을 해치려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상대를 죽이고 우리 자신도 죽입니다. 정말 안 좋은 거지요!



채식을 하면 행복하고 정신이 맑아진다

방콕 시 부사무차관 나사는 사비진 여사와의 인터뷰

(원문 태국어)

태국에서는 매년 음력 9월에 열흘 동안 구황제(九皇齋)가 열린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채식을 하면서 오락 활동을 금하고 절에서 경축 행사를 갖는다. 올해는 방콕 차이나타운에서 주요 행사를 주최하고 채식 음식 및 채식 재료 관련 전시회들을 개최했다. 방콕 시 부사무차관인 나사는 사비진 여사(Nathanon Thavisin)는 전시회장을 직접 방문하고 여러 부스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별한 인연으로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팀과 만난 사비진 여사는 다음날 인터뷰를 갖고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채식의 이상을 피력했다. (주: 방콕 시 부사무차관은 방콕 시장에 상응하는 위치로서 방콕 최고의 행정관이다. 사비진 여사는 환경 보호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생태계 보존과 국민 운동, 채식 등의 관련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질문: 방콕 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 이는 많은 방콕 시민들의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우리는 방콕이 주요 관광 명소에 그치지 않고 주요한 국제회의 장소와 채식 축제나 이번 '구황제'와 같은 문화 행사의 중심지가 되길 바랍니다.



질문: 열흘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번 채식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야오와라트(차이나타운)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과 축제에 대한 여사님의 기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이 행사는 고대 이야기에 나오는 관음(觀音) 공주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내려와 만물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일깨웠습니다. 많은 중국인과 태국인들이 그녀의 영향으로 채식을 하고 있지요. 이 열흘 동안 사람들은 육식을 절제하고 야채와 채식 식품만을 먹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콩과 콩으로 만든 채식 식품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채식 음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육식에서 자비로운 채식으로 바꾸기가 쉬워졌습니다.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나사는 사비진 방콕 시 부사무차관(오른쪽).



질문: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실 계획이 있나요?

답: 예. 쉘판사웅(Sumpahnthawong)에서요. 이곳은 방콕 중심가인 데다 중국인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방콕에는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여러 곳 됩니다. 여기 채식 음식이 아주 맛있어서 현재 거의 80%가량의 주민이 영적인 이유로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채식은 불교 전통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고 만들고 정신도 맑고 영민하게 해줍니다. 이 축제는 관음 신도들을 포함해 많은 단체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21세기 들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독일 등지에서 보다 더 조화로운 삶을 위해 국민들에게 채식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답: 우리도 채식이 보급되길 바랍니다. 육식을 좀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해 본다면 그 막대한 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채식은 암이나 심장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채식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하지요. 신체가 건강해지면 마음도 즐겁고 나아가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질문: 왜 채식과 명상이 많은 나라에서 점점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명상은 평화로운 상태에 들게 하고 내면의 지혜를 키워 줍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만족하고 감정도 잘 조절하게 되지요. 우리가 날마다 명상하고 영적인 생활을 추구한다면 그 이로움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고 사회의 훌륭한 모범도 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내면의 자아를 조용히 관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명상은 매우 중요한 거지요. 저는 차를 탈 때나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명상을 해요. 가끔 아이들이 절에 가자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꼭 절에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줍니다. 집이나 다른 조용한 곳에서도 명상할 수 있다는 거지요. 15분이나 45분, 1시간 정도 삼매에 들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연습을 해야 하지요. 잠잘 때나 길을 걸을 때도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명상을 하지만 명상만 하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이를테면 우린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그들에게 명상과 채식의 이로움을 알려 주었는가?” 하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법문과 채식의 이점에 대한 의견에도 감사드립니다. 태국에선 채식이 점점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들 채식이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마음과 영적 소양에도 좋다는 것을 알게거든요.

이 인터뷰와 채식 축제는 곧 썬 TV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방송된다.

관련 웹사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태국어 + 영어 자막)



동물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난다

캐서린 도일/ 호주 콕스하버 (원문 영어)

2003년 9월 1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지』는 ‘동물에 대한 정서 변화’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글을 쓴 제레미 리프킨은 동물에게 이른바 인류의 자질이라고 하는 감정과 학습 능력이 있는지 탐구하는 수많은 연구 사례를 인용하면서 동물도 인류와 똑같이 감정을 갖고 있으며 영리하고 민감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재미있는 일은 맥도널드, 버거킹, KFC 등의 패스트푸드 회사에서 이런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 회사들은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압박과 함께 동물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기타 연구와 더불어 동물의 감정과 심리, 행동 양태에 대한 연구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됐다.”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맥도널드의 경우 퍼듀 대학의 ‘돼지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연구

를 통해 돼지들은 정말 애정과 관심을 바라며 서로 어울려 놀 기회가 없으면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감정적·정신적 상호 작용이 결핍될 경우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유럽 연합(EU)은 2012년부터 돼지를 혼자 축사에 가두는 것을 불법화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에서도 이 연구를 중시해 돼지를 기르는 농부들에게 돼지와 매일 20초씩 인간적인 상호 작용을 할 것을 권장했다. 독일은 또 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기사에서 언급된 다른 연구에서는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 고릴라 재단에 있는 무게 300파운드의 암 고릴라 코코는 수화를 할 줄 안다. 코코는 1천 가지 신호를 알고 수천 개의 영어 단어를 이해하며 인간의 IQ 70에서 95에 해당하는 지능 지수를 갖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다. 코끼리가 죽은 친척 주위에 며칠 동안 서 있으면서 간혹 코로 죽은 코끼리를 만진다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동물은 자기 무리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념을 깨트린 것이다.

이 연구들과, 이와 관련한 세계 각국 정부의 자비로운 조치는 인류의 자비심이 동물의 권리와 복지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인류가 보다 높은 의식 수준으로 한발 내딛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 주는 지표다.

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commondreams.org/views03/0901-04.htm>





스승님과 천상의 작은 조수들

미니 명키 사저/ 독일 뮌헨

스승님과 함께 일하면서 겪은 많은 경험들을 통해 나는 스승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우리의 수행 진보를 위한 것이란 점을 확신한다. 우리에게 대한 스승님의 깊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초월한다. 우리도 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모든 편견을 없애서 스승님의 힘이 우리를 돕는 데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내가 겪은 경험담이다. 2001년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선 기간 동안 스승님은 내게 앵무새 두 마리와 얘기 좀 해보라고 부탁하셨다. 암컷을 선택한 것은 수컷이었고, 수컷을 위해서 이 ‘여자 친구’를 데려왔는데도 수컷 앵무새가 계속 암컷을 묻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 작은 초록색 커플이 화목하게 지내고 수컷이 암컷을 다시는 물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다른 앵무새들에게도 만족스러운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다. 내가 이 일을 도와준다면 당신은 새의 수준으로 내려가 그들과 대화할 필요 없이 바로 어울락 동수들을 만나러 가실 수 있다고 하셨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와, 드디어 스승님을 위해 뭔가 좀 도울 수 있겠군!’ 하고 생각했다.

나는 전에 스승님이 한 비디오에서 동물과 소통하는 법에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났다. 스승님은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들의 파장에 맞추고 사랑으로 대화하면

동물의 내면 세계와 자연스레 연결된다고 하셨다. 아마 많은 사형사저들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동물들과 대화할 때 계속 열심히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찌 다 한 번씩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스승님은 어떤 바람이든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방 문을 다 열어 놓은 궁전처럼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부처이신 것이다!

아무튼 나는 스승님의 요청에 따라 앵무새 커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형제애, 깨달음 등에 대해 설법을 했지만 아무 반응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앵무새들에게 지금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물었다. “어이, 운 좋은 새들이! 너희가 신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하니?” 그들의 대답은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긴 좀 어렵지만 대략 이런 뜻이었다. “너희 인간이 말하는 ‘신’이란 게 대체 무슨 뜻

인지 모르겠다. 너희는 에고와 습관,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우주의 에너지와 본능을 따르고 있으며 매우 자유롭다. 너희는 왜 어떤 일에 흥분하거나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지?”

이후 다시 초록 앵무새 커플에게 돌아왔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수컷 앵무새가 암컷에게로 거의 붙다시피 가까이 다가서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나는 스승님께 앵무새들에게서 ‘듣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더 많이 듣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하지만 스승님은 “괜찮아요. 사실 그 새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애들과 재미있게 놀라고 그런 것뿐이에요.” 하고 말씀하셨다.

이 경험으로 나는 생각을 넓히고 편견을 날려 버렸다. 스승님에게는 내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지만 스승님은 천상의 조수들(앵무새들)과 함께 내가 신에 대해 보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자 이런 상황을 안배하셨던 것이다.



사냥개는 기적을 소중히 여겨

한 남자가 새로 키운 사냥개를 데리고 시험 삼아 첫 사냥을 나갔습니다. 마침 오리를 맞췄는데 그만 호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영을 하지 못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냥개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물위를 걸어서 오리를 끄집어내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자기 눈을 믿지 못하고곤 증얼거렸습니다. “개가 물위를 건다니!” 그는 눈을 비빈 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저 개가 정말 물위를 걸었나?” 그는 계속 증얼거리다가 옆 사람에게 물었죠. “저 개가 좀 이상한 짓을 하지 않던가요? 당신도 봤나요?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요?” 그 개가 물위를 걷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던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봤어요. 아,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개는 수영을 못하는 거군요!” 그는 그 개가 수영을 못 한다고만 생각했을 뿐 다른 건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 삶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지요. 심장은 매일 끊임없

청하이 무상사/ 1996. 5. 13. 캄보디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47



이 박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심장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 고통 같은 걸 느껴야만 심장의 존재를 깨닫고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와! 정말 신기하구나. 이처럼 작은 심장이 우리가 따로 조절하지 않아도 매일 쉬지 않고 뛰다니!”

이것은 기적입니다. 삶 자체가 기적이지요. 대다수 사람에게 있어 매일매일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고에 귀기울이고 환상에 귀기울이며 해묵은 완고한 습관에 귀기울임으로써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요.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다 해도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옥으로 만드니까요.

신이나 베드로가 너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오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오면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과 스승에게 분별하지 말라고만 요구할 게 아니라, 스승과 신이 자비로우신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곳에 있거나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은총

청하이 무상사/ 1993. 3. 23. 호주 브리즈번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39



질문: 입문의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팠는데 입문을 하고 나선 힘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하고 줄곧 생각하면서 아주 흥분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승님: 당신 스스로 답을 했네요. 당신의 힘이 이미 깨어났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 생긴 겁니다. 당신의 햇불이 이미 불이 붙은 다른 햇불에 의해 불을 밝히게 됐습니다. 당신과 나의 햇불은 둘 다 불이 붙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같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가진 것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수행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이른바 ‘스승’에게 도와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도움을 얻습니다. 몇 분간의 입문을 받기만 하면 즉각 깨달을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지요. 하지만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는 마세요. 길 가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나머지 때로는 아이들처럼 기쁨에 겨워 뛰어다니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의 것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느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 8)”라거나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 15, 누가복음 18: 17)”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순수하다면 모든 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이니까요. 복잡하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낭비하기도 하고 축복이 그들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주변에 일종의 방어벽을 만들고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아무리 신의 축복이라 해도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은 천상에서 축복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켰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에게 제발 명상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이것을 알고 있고 또 신실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

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설명이나 논리도 필요 없고,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대지혜가 깨어나 바로 일을 시작해 ‘어긋난 몸 상태’를 조직하고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또한 마음을 정돈하고 우주의 큰 힘을 통해 부정적인 성품과 찌꺼기를 지우기도 하지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모든 병과 심신의 무거운 압박감은 전생의 업장이나 이번 생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비와 사랑의 원천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 버렸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 밖에 신의 일은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즐기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서는 말해도 괜찮지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을 때는 그들이 이해하는지 보고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해도 믿지 않고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여길 테니까요. 그럼 마음이 괴롭겠지요.



나는 상처받는 데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이리 오세요. 무료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을 알고 행복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프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약하거나 뭔가를 얻기 위해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요. 이리 와서 그것을 체험하세요.” 하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하지만 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온다 해도 다시 나가기도 합니다. 업장이 너무 무거워서 그들 앞에 사랑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까지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화신은 이 세상에 이처럼 큰 축복을 가져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에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 왜 자신을 믿지 못할까?’ 하고요. (대중 박수)

우리 법문은 다른 법문과 좀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의 힘(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을 일깨우고 스승이 되라고 하며, 평생 나를 숭배할 필요도 없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하거나 나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아는 방법을 알려 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자기 자신의 스승, 또는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숭배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겠죠. 그래도 똑같은 축복을 얻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입문하고 싶어하지는 않고 그냥 내 이름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내게 기도하는데 그들 역시 이로움을 얻습니다. 그들도 빛을 보고 때로는 화신 스승이 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들은 스승이 되고 싶어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나의 축복과 은총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것만을 원한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내게 의지하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문을 알려 주는 거지요. 매일 이에 따라 수행하면 점점 더 위대해지며, 원하는 게 있으면 요구하지 않아도 주어질 것입니다. 단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명상을 많이 할수록 업장을 보다 잘 다룰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7. 8. 27. 영국 런던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95

질문: 저는 제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방향을 잃곤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옳은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관음법문이 수시로 깨달은 스승의 인



도를 얻는 데 도움을 줍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실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스승님: 예, 물론이지요! 그게 이 법문의 목적입니다. 자신을 알고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을 주지요. 물론 그것이 하룻밤 새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명상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깨달음의 비전을 보면서도 명상이 끝나면 전부 다 잊어버려서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연습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매일 명상할수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실수가 없어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처럼 갈팡질팡한다면 뭐 하러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관음법문 수행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겁니다.

물론 신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린다면 더욱더 지혜로워지겠지요. 머리가 맑아진 상태에서 영감도 많아지고 직관도 한층 예리해질 겁니다. 다른 모든 잡다한 것을 비우고 신과 소통한다면 모든 게 매우 분명해집니다.

질문: 나쁜 업장이 깨달음의 발전을 가로막습니까?

스승님: 전적으로 막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쁜 업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깨달은 후, 또는 입문한 후에는 참 스승이 과거의 업장을 다 지우고 이생의 정업만 남겨 놓습니다. 다 지우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여기에 존재할 이유도 없게 되니까요. 이 삶을 계속해 나갈 이생의 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좋고 나쁜 인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나쁜 업장이 다 지워질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고 채식을 함으로써 미래에 생길 업이 최소화되고 삶도 보다 순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업장만 다루면 됩니다. 새로운 업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이 고통스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 다시 태어나길 원한다면 그때는 깨달은 성인으로나 오겠지요. 오고 싶지 않다면 좀더 높은 영적인 세계에 남아 그곳의 선생으로, 또는 많이 깨닫고 행복한 우주 시민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좋은 업장, 나쁜 업장은 모두 우리가 세세생생 심어 놓은 결과입니

다. 살아 있는 스승의 도움이 없다면 이 축적된 업장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법칙입니다. 신은 스승에게 이 축적된 업장을 처리하도록 전권을 맡기고, 스승은 이 업장을 태워 신실한 구도자가 보다 홀가분하게 이 험난한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신이 깨달은 스승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하면서 동시에 깨달음을 추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기 중인 저장된 업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만약 쌓아 놓은 업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가 갚은 것은 이생의 정업일 뿐 전생에 쌓은 업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생의 업을 갚고 난 후에도 다음 생의 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번 생의 업장만 조금 남겨 놓고 과거의 업장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생의 정업은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명상을 많이 하고 신과 더 소통할수록 나쁜 업장을 처리하는 법을 보다 잘 알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부담감도 그리 느끼진 않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감기가 걸리거나 병이 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약하다는 느낌도 없을 것입니다. 아플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쉽게 이겨냅니다.



대한민국 소식

가난한 탄광촌에 온정을 전하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영동 동수들은 스승님께서 지난 9월에 태풍 매미 구호금으로 보내신 5만 달러 중 남은 잔액을 가지고 수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 활동을 펼쳤다. 스승님의 완벽한 안배로 남은 돈은 구호 활동에 필요한 액수와 딱 맞아떨어졌다.

구호 활동을 위해 동수들은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을 방문했다. 이곳은 폐쇄된 탄광촌으로서, 주민 대부분이 독거 노인들, 고아, 장애인들이다. 이들은 평소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데, 지난 태풍으로 인한 복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수들은 이 지역 전체 171세대에 연탄 200장씩을 지원하고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도 함께 나눠 주었다.

철암동 주민들은 간헐적으로 사회복지 단체의 지원을 받아 왔으나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혹시 기증된 연탄이라도 있는지 동사무소에 연일 문의를 했으나 동사무소 측에서도 연탄이 충분치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동수들은 11월 26일 오후 1시에 연탄 교환권을 나눠 주기로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늦으면 못 받을까 봐 아침 9시부터 전달 장소인 노인 회관에 모여들기도 했다. 연탄을 나눠 주자 동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우리의 지원 덕분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전 세대가 연탄을 지원받게 되었다며 스승님께 거듭 감사드렸다.

이곳에서 부모 없이 사는 어린 세 남매도 연탄 200장을 받아 난방비 걱정이 없어졌다고 무척이나 기뻐했다. 남매의 학교 선생님들 역시 이들에 대한 근심을 덜었다며 따뜻한 지원을 보내 주신 칭하이 무상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9월 태풍 구호 활동 당시 우리 단체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인 최현숙 씨는 당시에는 우리 단체를 여러 종교 단체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한다. 그 뒤 우연히 동수가 운영하는 채식 식당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스승님과 우리 단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그녀는 우리가 회비를 걷지 않는 자발적인 비영리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제자들이 이토록 훌륭하니 칭하이 스승님은 분명히 매우 훌륭한 분일 거라고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여타 종교 단체들과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활동을 선전하거나 생색을 내는 대신 실제적인 도움을 드러나지 않게 주면서 조용히 떠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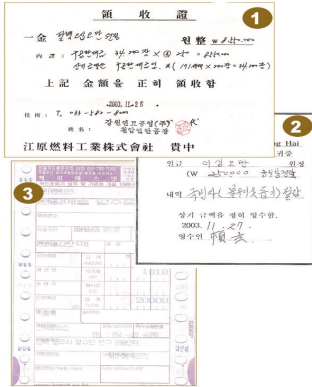
철암동 구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영동 동수들은 이 말을 들은 후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소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재차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칭하이 무상사의 한국 철암동 불우 이웃 돕기 구호 활동 지출 내역

(단위: 원)

항 목	금 액	영수증
연탄	8,550,000	1
재정 지원	250,000	2
기타 경비	20,000	3
총액	8,820,000원 (미화 약 7,670달러)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칭하이 무상사, 철암에 월동용 연탄 기탁

(원문 한국어)

【태백】 “수해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바랍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수해를 입은 철암 지역 주민들에게 연탄을 나눠 줘 연탄불 같은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 상주 모서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이미 지난 9월 두 차례나 철암 지역을 찾아 이불과 옷, 생필품 등 1천여 만 원 상당을 수재민을 위해 기탁한 데 이어 또다시 최근 855만 원 상당의 연탄을 철암 지역에 전달했다.

태백시는 연탄을 사용하는 철암 지역 171세대 주민들에게 1가구당 200장씩 나눠 줬다.

철암 지역은 3천 세대 중 아직도 170여 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독거 노인이나 생활 보호 대상자여서 이번 연탄 기증은 주민들에게 소중한 떨감이 되고 있다.

장경희 태백시 철암동장은 “주민들이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연탄 한 장이 아쉬운데 무상사에서 세 차례나 도움을 줘 고맙다.”며 “겨울철 불우 이웃 돕기로 연탄 기탁자들이 늘고 있어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2003년 12월 8일자 『강원도민일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경북 상주 무상사 철암에 월동용 연탄 기탁

【태백】 “수해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바랍니다.”

영을 찾아 이불과 옷 생필품 등 1천여 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독거 노인이나 생활 보호 대상자여서 이번 연탄 기증은 주민들에게 소중한 떨감이 되고 있다.

장경희 태백시 철암동장은 “주민들이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연탄 한 장이 아쉬운데 무상사에서 세 차례나 도움을 줘 고맙다.”며 “겨울철 불우이웃 돕기로 연탄 기탁자들이 늘고 있어 이웃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배 shhong@kado.net

홍성배 기자



태국 치앙마이 소식

나눔의 정신을 외딴 리서 산에 전하다

방콕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2003년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치앙마이와 프래, 방콕 동수들은 치앙마이에 모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족민들이 살고 있는 태국 북부 지역의 리서 산간 지역에서 박애 구호 활동을 펼쳤다. 이곳의 대다수 주민들이 물질적 원조를 받은 적이 없는 관계로 우리는 세 곳을 정해 작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 장소는 한 군사 기지였는데, 이곳 지휘관인 시로테 대차씨가 여러 군인들과 함께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구호 본부를 세우고 91가구에 담요와 긴소매 셔츠, 티셔츠, 양말, 슬리퍼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나눠 주었다.

주민들은 오전 내내 기다리는 동안 돗자리에 앉아 동수들이 틀어 준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시청했다. 우리 동수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스승님의 축복을 가득 느꼈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굴 가득히 밝은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로 들른 곳은 외부와 좀 고립된 산골이었다.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일반 차량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는데, 군부대에서 탱크로 데려다 준 덕분에 구호품과 현금을 각 가정에 전달할 수 있었다.

이어서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깊은 산에 위치한 세 번째 마을에 도착했다. 우리는 한창 신축 공사 중인 학교에서 수건과 비누, 샴푸, 베이비파우더, 치약, 칫



솔 등의 세면도구를 마을 어린이 전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동수들은 선물을 어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인근 강가로 내려온 아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씻겨 주었다. 순진한 아이들은 거품이 나는 용품도 써보고 샴푸로 머리도 감으면서 연신 웃음을 터트렸다.

그후 아이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보고 있는 동안 주방팀은 채식 음식을 서둘러 장만해 모두에게 대접했다. 저녁 식사 전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빵을 나눠 주자 생전 처음 빵을 본 아이들은 매우 신기해했다. 작업 팀

까지 합쳐 모두 80명이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함께 했으며, 음식이 인기가 좋아서 아이들은 두세 번씩 갖다 먹기도 했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모두들 흥이 났고 온 산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아이들에게 우비와 풍선, 초콜릿, 바닐라 맛 와플이 든 스승님의 특별 선물을 나눠 주자 즐거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원주민 여성들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뜻으로 모닥불을 돌며 전통 춤을 추면서 모두 참여하도록 이끌어 우리는 모두 축복 받은 순간을 한껏 누렸다. 이날 밤 내내 빛과 행복으로 충만했으며 행사는 행복하게 끝을 맺었다.

이튿날 아침 치앙마이 센터의 한 사자가 참석자들에게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소개하자 주민들은 많은 영



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도 얻었다. 주민들은 스승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전단지가 포함된 스승님의 선물을 또 한 번 받았다. 이 마지막 선물을 끝으로 작업 팀은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며 리써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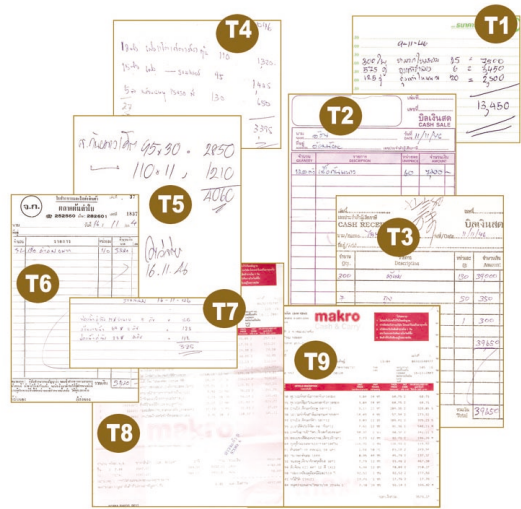
을 떠났다.

불우한 태국 북부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심오한 진리를 전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태국 북부 리써 산 부족민에 대한 구호 활동 지출 내역

(단위: 바트)

항 목	금 액	영수증
이불 300채	39,000.00	T3
겨울 모자 300개	7,500.00	T1
방한 양말 125켤레	2,500.00	T1
일반 양말 575켤레	3,450.00	T1
성인용 스웨터 120벌	7,200.00	T2
청소년용 스웨터 55벌	6,050.00	T4, T5, T6
아동용 스웨터 45벌	4,275.00	T4, T5
수건 5다스	650.00	T4
약품 3상자	4,652.00	T8
어린이용 목욕용품 및 문구 62세트	4,119.50	T7, T9
비닐 봉지	350.00	T3
포장비	300.00	T3
총액	80,046.50바트 (미화 약 2,020.36달러)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식

사랑과 온정을 전해 받은 노숙자들

호앙 응우옌/ 샌프란시스코 (원문 영어)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얇은 담요와 판지 박스를 가지고 추운 겨울을 굶주림 속에 난다.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도 거의 없다.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이 불우한 형제자매들에 대해 자비

심을 발휘해 따뜻한 미소와 물질 원조를 통해 스승님의 축복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 주고 2003년 크리스마스 철에도 신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걸 일깨워 주었다.



노숙자 한 명당 두세 명의 동수가 붙어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방한용품, 따뜻한 음식이 든 선물 가방. 그 중 침낭과 외투는 노숙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12월 13일 깊은 밤, 동수들은 미니벤과 자동차에 침낭과 겨울옷, 뜨거운 음식과 견본책자 등을 가득 싣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향했다. 몇 시간 내내 내리던 비가 시내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멈춰서 스승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시간 반 동안 동수들은 도시를 살살이 살피며 노숙자들을 찾아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필요한 물품을 나눠 주는 한편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될 영적인 소식도 전달했다.

노숙자 봉사 활동은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에게 있

어 이미 공휴일 고정 행사가 되었다. 매년 연말 때마다 동수들은 많은 노숙자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현재의 모습을 선택해 내려온 성인과 천사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 우리의 자비심을 키우고 이생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신의 눈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미국 플로리다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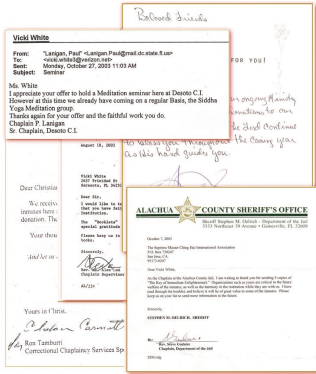
스승님의 사랑이 교도소의 영혼들을 감동시키다

비키 화이트/ 올랜도 (원문 영어)

2003년 봄부터 플로리다 동수들은 플로리다 교정국 목사 겸 자원 봉사 프로그램 집행관인 알렉스 테일러 목사와 수차례 연락을 취하며 플로리다 주립 교도소에 영어 및 스페인어판 견본책자를 기증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54개 장기 교도소를 비롯해 플로리다 내 161개 교도소가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견본책자 꾸러미 속에 각 교도소 담당 목사 앞으로 원한다면 견본책자와 오디오 및 비

디오테이프를 더 보내 주겠다는 편지를 넣었다. 이 견본책자는 각 교도소 도서관과 무료 문학 서적 구역에 비치된다. 교도관들의 추천에 의하면 플로리다 관할 교도소 내에는 7만 7천 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중 많은 재소자들이 스승님의 책을 읽게 되길 희망했다.

에버글레이드 교도소의 알렉스 램 주임 목사는 우리에게 보낸 감사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 에버



플로리다 각 교도소에서 보내 온 감사 편지.

희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책자도 보내 주십시오.” 이 요청에 대해 동수들은 램 목사에게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교류』,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등의 책자를 보내 주고 이에 대한 두 번째 감사 편지도 받았다.

게인스빌 교도소의 론 탬버리 전담 교회사(敎誨師)도 감사 편지를 보내 왔다. “우리 교도소에 기증해 주신 종교 책자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곳 게인스빌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대신해 여러분의 기증에 감사드립니다

그레이드 교도소 교회에 책자를 기증해 주신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견본책자는 잘 도착되었습니다. 귀 협회의 사려 깊은 관심에 저희 소내 재소자들은 각별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책을 기증하실 계획이 있다면 저희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다. 저희 재소자들은 귀 협회가 보내 주신 자료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귀 협회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그는 편지 끝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 우리를 격려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

또한 우리는 데소토 교도소의 라니건 목사와 알라쿠아 군 보안관 구치소의 가데어 신부에게서도 감사 편지를 받았다. 가데어 신부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구치소와 기소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정보도 제공해 주길 희망했다. 이에 동수들은 그에게 스승님의 다른 출판물 몇 가지를 보내 주었다.

플로리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견본책자가 플로리다 각지의 교도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으며, 이들 고통 받는 영혼에게 스승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스승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생에서 결코 스승님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사리소타 헤럴드 트리뷴』

미국 최초의 신앙 교도소

비키 화이트 사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원문 영어)

다음은 미국 플로리다 『사리소타 헤럴드 트리뷴』 지의 2003년 12월 25일자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플로리다 동수들은 이곳 재소자들이 각자의 영성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신을 알고자 하는 이들의 갈망을 보다 깊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

2003년 12월 24일 수요일, 잼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교도소인 로티 교도소를 개소했다. 이 교도소의 건립 목적은 재소자들





이 신앙과 영적 성장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데 있다. 재소자들은 이곳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자유로이 다른 교도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플로리다 지역 내 다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역시 로터 교도소로 이송될 선택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로터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소자들은 최소한 1년 이상 사고 경력이 없어야 로터에 송치될 수 있으며 규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송된다.

로터의 재소자 791명은 현재 26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교도소에는 현재 50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종교 교리 공부를 돕는 지도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도소 측에서는 이 외 5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교화부 제임스 크로스비 사무관은 “우리는 재소자들이 각자의 신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소에서는 다른 시설에서 일어나기 마련인 극심하고 부정적인 억압이나 상호 작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기사 관련 웹사이트: <http://www.heraldtribune.com/apps/>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소식

추수감사절, 사랑과 웃음을 야간 보호소에 전하다

이기 용/ LA 센터 (원문 영어)

2003년 11월 15일 LA 센터 동수들은 뉴이미지 비상 보호소를 방문했다. 이곳에선 할리우드와 이름난 빈민촌인 스킨로(Skid Row) 지구를 비롯한 LA 시내 각지의 노숙자 4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창고를 개조한 이 보호소는 LA 최대의 노숙자 수용소로서 주방과 남녀 취침 구역, 샤워실, 이발소, TV 몇 대, 노숙자들의 취업을 돕는 작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의 노숙자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곳을 현재 1년 내내 개방하고 있으며, 매일 여러 대의 버스로 지정된 4개 지점을 순회하며 밤을 보낼 노숙자들을 보호소로 실어 나르고 있다.

우리는 보호소에 도착한 후 이곳 직원의 상세한 안내를 받아 건물을 한 차례 돌아보았다. 잠시 후 낮



로스앤젤레스 동수들이 뉴이미지 비상 보호소의 노숙자들에게 스승님의 사랑 어린 선물을 전달하다.



주의 깊게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읽고 있는 노숙자 친구.



동안 거리에 있었던 노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도착했다. 노숙자들은 모자가 달린 스웨터와 장갑, 양말, 털



모자, 담요, 우비, 그리고 동수들이 준비한 채식 요리가 테이블 가득 차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밤 동수들은 이곳 보호소에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방식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 받았다. 예를 들어 옷 꾸러미를 받은 한 70대 할아버지는 한 사형과 열렬히 악수를 나누며 고마움과 슬픔 어린 목소리로 “최근 아내가 저 세상으로 떠나고 직업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밤 여러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저녁 시간 내내 즐겁고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80대의 스페인계 할머니는 선물을 쌓아 놓은 탁자에 와서 새 옷을 입어 보며 사랑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고 묻기도 했다. 또 새 옷을 침대 위에 죽 늘어놓고 아이들처럼 즐거워하며 선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침상에 앉아 스승님의 건

본책자를 읽는 데 열중했다.

선물을 거의 다 나누어 줄 무렵 이 보호소의 관리자인 실비아 라자노 씨가 우리에게 이곳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누가 이 옷들을 기증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한 사형이 칭하이 무상사와 우리 협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 청중들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

며칠 후 라자노 씨와 다시 연락을 했을 때 그녀는 새 옷을 받은 노숙자들이 매우 행복하고 흡족해했으며 많은 이들이 새 옷을 선보이며 저녁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 이번 방문이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애기했다. 스승님의 사랑과 안배 덕분에 뉴이미지 비상 보호소의 노숙자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웃의 진실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센터 동수들에게는 신의 사랑을 주고받는 축복 받은 기회이기도 했다!

페루 리마 소식

화재 이재민들을 긴급 지원하다

에드가 & 테레사/ 리마 (원문 스페인어)

2003년 12월 리마 동수들은 원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리마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로모 데 코르비나(Lomo de Corvina)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무산되었다.

12월 초 발생한 이 화재는 현장에 물이 없어서 모래로 겨우 불길이 잡혔다. 스승님이 돌보셔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약 284가구가 이번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다.

화재가 진압된 후 동수들은 12월 22일 재해 지역을

방문해 284가구 중 200가구에

그릇과 플라스틱 컵, 화장지를 나눠 주고 12월 29일 다시 한 번 방문했을 때 더 많은 그릇과 플라스틱 컵을 전했다. 우리는 물품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눈에서 감사와 위안을 느낄 수 있었으며,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들의 아픔을 크게 달래 주었다.

리마 동수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형제자매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감사히 여겼다.





아르헨티나 산타페 소식

다시 한 번 많은 축복을 받은 산타페 수재민들

마벨 카폴란/ 부에노스아이레스 (원문 스페인어)

2003년 4월 말 아르헨티나 북부 산타페 지방이 홍수 피해를 입었을 당시 자비로운 스승님께서서는 담요와 목욕 타월, 양초, 아이들을 위한 과자 등 물자를 지원해 주셨다. 이러한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수재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견뎌 낼 수 있는 정신적인 후원과 희망을 주었다. (뉴스잡지 144호 참고.)

동수들은 처음 산타페에 도착해 구호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상황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거나 아예 맨발로 홍수가 휩쓸고 간 차가운 진흙바닥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신 스승님이 이 지역에 다시 한번 구호금을 보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은 신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스승님의 사랑은 산타페에서 가장 가난하고 홍수 피해도 큰 빈민촌인 산로렌소(San Lorenzo)와 라스로마스(Las Lomas) 두 곳에 전해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동수들은 구호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산타페에 도착, 이 지역 동수들과

함께 일을 진행했다. 구호 활동 당일은 햇살이 두루 비추는 가운데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스승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곳은 산로렌소.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아는 다니엘라 페레이라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눠 주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페레이라 씨는 일을 마친 후 스승님의 자비로움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동수들은 라스로마스로 향했다. 이 지역 아이들은 릴리아나 마르텔 교장,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서 선물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1학년부터 십대 청소년까지 모두 운동화 한 켤레와 스승님의 모습이 담긴 스티커를 받았다. 많은 아이들이 스승님에 대해 물으며 자기 침대에 붙일 스승님의 사진 스티커를 더 얻어 가고 싶어했다.

활동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전심을 기울여 일한 덕분에 이번 산타페 구호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호 활동을 마친 후 스승님의 훌륭한 도

구가 되어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어려운 어린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감사와 기쁨을
느꼈다. 스승님,
당신의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감사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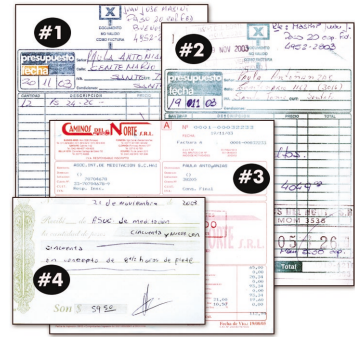
산타페 어린이들이 칭하이 스승님이 보내신 신발을 받고 환한 미소를 짓다.



칭하이 무상사 지원, 아르헨티나 산타페 어린이에 대한
신발 기증 지출 내역

(단위: 페소)

항 목	금액	영수증
신발	4,049.00	#1 & #2
교통비(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산타페까지)	112.94	#3
현지 운송비	59.50	#4
총액	4,221.44 (미화 약 1,500달러)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포모사 내 사랑의 활동 일람표
표 1과 표 2 총액 NT\$247,870 (미화 7,333.43달러)

표 1: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내역

(단위: NT)

장 소	날 짜	내 역	금 액	영수증
핑둥	2003. 9. 7.	핑둥 완루안 향 신즈 마을 방문, 노인들에게 중추절 선물 전달	18,480	A
타이난	2003. 9. 12.	타이난 환경보호국의 환경 보호 캠페인에 동참, 골든 코스트 해안 청소 활동(동수들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3. 9. 24.	타이난 밋터 개방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들 자원 봉사)	0	
지아이	2003. 10. 22.	지아이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동수들 자원 봉사)	0	
진먼	2003. 10. 24.	진먼 교도소 방문,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들 자원 봉사)	2,100	B
지룽	2003. 10. 25.	지룽 환경보호국의 환경 보호 캠페인에 동참, 바도우즈 마을 장탄리 평당교(橋) 해변 청소 활동	2,520	C
진먼	2003. 10. 26.	진먼 현 가족 원조 센터 소속 어린이에 대한 관심. 10월 25일과 26일 진먼 국립공원 중산 캠프장에서 '작은 천사 기쁨과 성장 캠프' 개최	22,600	D
진먼	2003. 10. 28.	진먼 주민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흥법 활동 개최. 진샤 마을 관공소에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상영, 예술 작품전 및 영성 세미나 개최, 방편법 전수, 채식 시식회	15,740	E
진먼	2003. 10. 30.	진먼 주민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흥법 활동 개최. 레이위 섬 관공소에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상영, 예술 작품전 및 영성 세미나 개최, 방편법 전수, 무료 건강 검진 및 이발 봉사 활동, 채식 시식회	15,430	F
총액			NT\$76,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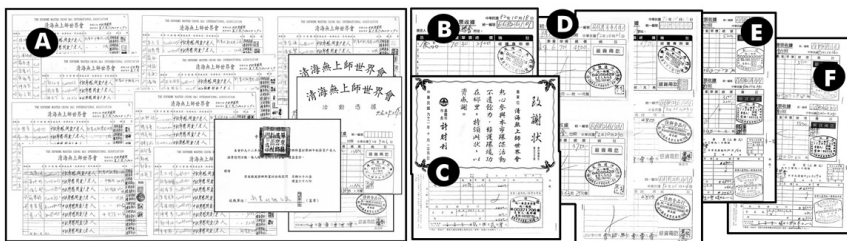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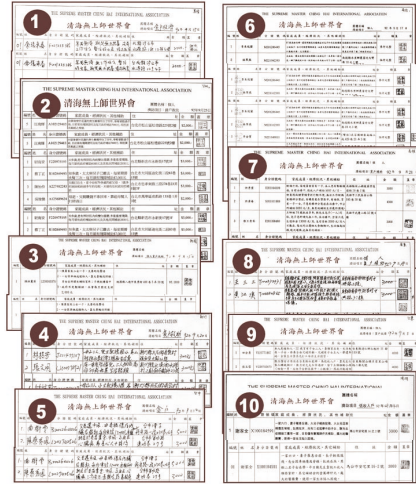




표 2: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포모사 내 불우 이웃 돕기 지출 내역

(단위: NT)

지 역	2003년 9월		2003년 10월		영수증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지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5	13,000	5	13,000	2
타오위안	1	2,000	1	2,000	3
신주	2	6,000	2	6,000	4
타이중	2	8,000	2	8,000	5
난토클	7	26,000	7	26,000	6
가오슝	3	10,000	2	7,000	7
핑둥	3	9,000	3	9,000	8
타이둥	2	8,000	2	8,000	9
평후	1	3,000	1	3,000	10
월별 소계	27	\$87,000	26	\$84,000	



2003년 9·10월 동안의 포모사 자선 활동 보고



수년 동안 해변 청소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지룽 동수들.



지아이 교도소에서의 영성 세미나.



동수들이 지아이 교도소 재소자들과 함께 수행 가곡을 불렀다.

긴급 뉴스!

이란 소식

이란 지진 희생자들에게 사랑의 성금 전달



2003년 12월 26일 새벽, 이란 남동부 밤(Bam) 시에서 강진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와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소식을 접한 스승님은 큰 염려와 함께 구호금을 보내시며 동수들에게 구호 활동을 지시하셨다. 이란과 싱가포르 동수들은 곧바로 구호 팀을 조직해 스승님의 사랑과 7만 달러를 가지고 2004년 1월 1일 재난 지역에 도착, 생필품을 구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이 활동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다음 호 뉴스잡지에 실린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모리셔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intnet.mu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케이프타운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더반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webmail.co.za
★ 토고	센터	228-4-410-948
팔리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캄팔라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부에노스아이레스		
★ 볼리비아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산타크루즈	Mr. Wu Chao Shien	591-4625964
트리니다드		
★ 브라질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벨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레시페		
상파울루		
★ 캐나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look.ca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연락인 사무실	Ms. Li-Hwa Liao	1-604-580-4087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라세레나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보고타		
★ 코스타리카	센터	506-2200-753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산호세	Ms. Laura Chen	
★ 온두라스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테구시갈파		
★ 멕시코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칼리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t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마나과	센터	507-236-7495
★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centro@yahoo.com
쿠스코	센터	51-1-4716472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산살바도르		
★ 트리니다드 섬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stt.net.tt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jedj@cox-internet.com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thanhgiang1990@yahoo.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플로리다 :		
*케이프코탈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s1095@earthlink.net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캔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메사추세츠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미주리 :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네바다 :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anawarskas@hotmail.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dcouch@rochester.rr.com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eye@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오리건 :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ldawu@yaho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attbi.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CHINGHAI_TX@sbcglobal.net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cuc_le@sbcglobal.net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lethong@hotmail.com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ly@hotmail.com	

*버지니아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tran@ao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adez Morale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아시아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n.hinet.net	
	Mr. & Mrs. Loh, Shih-Hurng	886-2-2706-2628
	shloh@ndmctsg.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 인도		
뭄바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 인도네시아		shive@cal.vsnl.net.in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발리	센터	62-361-231-040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mch_bali@yahoo.com	팔라렘푸르	센터	supreme2@tm.net.my
	Mr. Agus Wibawa	62-81-855-8001			603-9287-3904
자카르타	센터	wibawa001@yahoo.com		연락인 사무실	klsmch@tm.net.my
		62-21-6319066			6012-259-5290
		smch-jkt@dnnet.net.id	페낭	센터	klgcp@hotmail.com
	Mr. Tai Eng Chew	62-21-6319061			6-018-2413832
	Ms. Lie Ik Chin	62-21-6510218		Mr. & Mrs. Lin Wah Soon	pgsmch@pd.jaring.my
		finance1@uei.com			60-4-6420370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 몽골		
		hai@cbn.net.id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50422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baasandamba@yahoo.com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마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irn_up@yahoo.com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 네덜란드		
		yudi_wartono@telkom.net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Mr. Ajay Shrestha	977-1-473558
		smch_medan@hotmail.com		ajaystha@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포카라	센터	977-61-28455
		ahimsasb@indosat.net.id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Mr. Harry	62-31-594-5868		neupanebishnu@hotmail.com	
		harry_1@sby.dnet.net.id		Mr. Shiva Bastola	977-61-28255
옥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t.adianingtyas@eudora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 싱가포르	센터	manilach@hotmail.com
		ya05@netvision.net.il			65-6741-7001
★ 일본				chinghai@singnet.com.sg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 스리랑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divinalv@mtb.biglobe.ne.jp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tateyama_lg@yahoo.co.jp		lawrance@thefinance.lk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 태국		
		cal13840@pop07.odn.ne.jp	방콕	센터	662-674-2690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bkk_c@hotmail.com	
		y-plus@f6.dion.ne.jp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 한국					66-2-5914571
	출판사	031-772-9250		edasnld@samsorn.stou.ac.th	
		chinghai@unitel.co.kr		Mr. Wu Peir Yuan	66-1-8248294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4128
		houmril@kornet.net	콘캔	센터	66-43-378112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송크라	센터	66-74-447224
		quanyim@unitel.co.kr			
	유태인	02-795-3927	*** 유럽 ***		
	이지자	02-599-1701	★ 오스트리아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chinghaibusan@hanmail.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송호준	051-957-4552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황상원	051-805-7283			sound@gmx.at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 벨기에		
		shc5824@hanmail.net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신현창	063-254-5824			gotske@yahoo.fr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 불가리아		
	이재문	032-244-1250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oldruslan@yahoo.com	
		chinghaidaegu@hanmail.net		359-32-940726	
	김익현	053-633-3346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chinghaiplovdiv@mail.bg
	한선희	053-767-5338			385-51-251081
	차재현	053-856-3849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zeljko@mindless.com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김수동	042-254-7309	★ 체코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조명대	061-394-6552		prague-center@chinghai.cz	
		smgwangju@naver.com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Chinghai@chinghai.cz	
	김삼태	054-821-3043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my@webspeed.dk	
★ 마카오	센터	853-532231	★ 핀란드		
		macau_center@email.com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hoanghanh@jippii.fi	
★ 말레이시아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 스웨덴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rai@infonie.fr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e.sweden@post.utfors.se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파리	센터	33-1-4300-6282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스위스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 독일					Ms. Klein Ursula	41-22-3691550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 영국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49-174-5265242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Mrs. C. Y. Man	44-1895-254521 pnl@matters19.freemove.co.uk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l.wellers@ntlworld.com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 스코틀랜드		
★ 그리스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오세아니아 ***		
★ 네덜란드				★ 호주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 헝가리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Mr. Lux Tamas	36-304273364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Ms. Dora Seres	36-1379-1924		바이런베이/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캔버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 아일랜드					센터	melbsmch@aol.com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 노르웨이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 폴란드				퍼스	센터	61-8-9242-1189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quanyin_pl@yahoo.com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czakra@interia.pl		Mr. Ly Van Tri	61-8-9244-7661
우즈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 포르투갈					Mr. Hong Bo	61-2-48445170 hongbo_huang@hotmail.com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lisbon_center@yahoo.com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뉴질랜드		
★ 러시아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Mrs. Anne Lester	649-625-1809 annenz@eudoramail.com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 스페인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멜스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Ms. Lidia Kong	34-91-5470366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무상예술

S.M. 추동복 컬렉션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
참 기분 좋구나...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중국어〉

[MP3-CR12] 포모사 시후 선삼 (1), (3)

1991. 9. 21.-23./ 1992. 6. 5.-7.

주요 내용:

1. 두뇌와 주인/ 가장 강력한 방법.
2. 올바른 법문을 수행하면 좋은 결과를 낳는다.
3. 복과 은총을 받는 법.
4. '호랑이'에 관한 환상/ 스승님의 영원불변한 사랑.
5. 인연 관계를 원만히 풀어서.
6. 스승님이 보고 싶은 이유.
7. 스승님의 천진난만한 마음.
8. 신의 진정한 면모.
9. 출가의 공덕.
10. 깨달은 스승과 범부의 차이.
11. 굴타(屈陀)의 회생.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중국어 + 대만어 통역〉

[CD-CE05]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성한 관계

1986. 7. 8. 포모사 타이베이 완화 강연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중국어 자막〉

497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다

1995. 8. 25.-27. 독일 함부르크 유럽 국제 선삼

내용 요약: 개인의 성격이나 장점, 단점 등은 깨달음과 관계가 있는가? 고대 스승과 제자들 간에 수많은 '선 문답'이 있는 까닭은? 이런 이야기 속에 숨은 뜻은 무엇인가? '이론적인 이해'와 '궁극적인 깨달음'의 차이는? 깨달은 스승이 말로써 전하는 가르침은 우리 수행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가? 진정한 가르침을 언어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순간을 사는 것'의 참뜻은 무엇인가? 왜 많은 스승들은 같은 옷을 입는가? 스승님은 다양한 겉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중국어 + 영어 자막〉

513 최고의 화강술

1995. 11. 12.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내용 요약: 관중과 포숙아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수행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가? 스승님은 '보기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데, 어떤 옷을 가리키시는 말씀인가? 이전 결혼 생활에서 스승님은 어떻게 옷을 입으셨는가? 수행자는 세상의 덧없는 명리를 꿰뚫어 보고 내적·외적으로 합일을 이루어야 한다. 명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룬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